

정부 “P2P 혁신금융” 외쳤지만 업체 잇단 부실에 투자자 속탄다

수익률 높고 연체율 낮아 투자자 난달 ‘온투법’ 시행에 자금줄 막혀
돌려막기 안되자 연쇄 부실 우려

“인천에서 택시비만 12만 원 내고 왔어요. 일이 손에 잡혀야 말이지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개인 간 거래(P2P) 금융회사 ‘코리아펀딩’ 사무실을 찾은 A 씨의 말이다. A 씨는 이자를 받기로 한 날짜가 지나 이 회사에 전화를 했지만, 관계자와 연결이 되지 않아 직접 사무실을 찾았다. 누적 대출액 업계 8위 업체인 코리아펀딩은 이날 오후 투자자들에게 투자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A 씨는 “평소 연락하던 직원한테 전화하니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 (이 회사에) 7600만 원을 투자했다. 직장까지 쫓겨치고 이렇게 왔을 땐 얼마나 피가 말랐겠냐”며 코리아펀딩의 무책임한 태도에 울분을 토했다.

▶관련기사 5면

이날 A 씨와 함께 있던 B 씨 역시 이자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사무실을 찾았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주요 P2P 사고			
	투자자 수	피해 금액 (추산치)	
해라펀딩	2000명	130억 원	2018년 5월 부도
펀두	2800명	216억 원	대표 해외 도피
오리펀드	1300명	130억 원	대표 잠적 공지 12일 후 경찰 자진 출두
아나리츠	6000명	1000억 원	사기 및 횡령으로 임원진 실형 선고
넵펀	2000명	251억 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블루문펀드	4000명	570억 원	대표 해외 잠적
팝펀딩	2만1300명	380억 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B 씨는 “8000만 원을 투자했다”며 “대표를 직접 만나 해명을 듣고자 왔다”고 했다. 영업 시작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약 5시간 동안 투자자 10여 명이 이 사무실을 찾았다. 모두 비슷한 이유로 감해동 코리아펀딩 대표를 만나러 왔다. 하지만 이들은 김 대표가 출근할 가능성이 낮다는 회사 관계자의 말에 결국 일터로, 또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코리아펀딩은 뒤늦게 홈페이지에 “대출자와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분할해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황이다.

17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P2P 업체를 제

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은 지난달 27일 시행됐으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온투법으로 투자금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차주사 대출 연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업계의 해명이지만 투자자의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다.

코리아펀딩은 7월 31일 기준 누적 투자액 3397억여 원으로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44개 업체 중 8위다. 연체율 역시 2.4%로 협회에 등록된 회사 평균인 8.83%보다 낮다. 투자자들이 거액을 투자한 것도 이 때문이다. P2P 업계에서 소규모 회사가 아닐뿐더러 연체율 역시 낮아 코리아펀딩을 신뢰했다.

정부가 혁신금융 사례로 아낌나게 추진했던 P2P금융이 법적 장치의 부재를 악용해 투자자를 기만하고 시장을 음성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속이 타는 건 투자자다. 원금 상환이 지연돼 경찰 수사까지 남겨진 P2P 업체 ‘블루문펀드’에 투자한 C 씨는 어렵게 취업 관문을 통과한 후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P2P 상품에 투자했다. ▶5면에 계속 문수빈 기자 bean@

‘秋 아들 문제’ 본질은 합법적 특권에 대한 분노 여야 정쟁 접고, 檢 신속 수사를

데스크 진단 신 동 민 정치경제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가 특혜 의혹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정기 국회가 열렸지만, 여당과 야당은 이 문제로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다. 국론은 사분오열됐다. 지금이 이럴 때인가.

사건의 핵심은 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합법적 특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의 문제다. 특히 병역 문제는 대한국민(大韓國民)에게 ‘역린’이다.

이 사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접근법은 잘못됐다. 여당은 위법이 아니라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실언만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이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는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합법적인 제도에 내재한 불공정까지 해소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의 말처럼 여당은 ‘합법적 특권’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적법하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배고픔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하는 민심만 악화시킬 뿐이다. 특히 ‘헬조선’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청년층에겐 불공정·반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오래된 화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추 장관도 2016년 당대표 후보 시절 서울시장 합동

연설회에서 “모두가 주거와 노후에 불안해하면서 좌절 속에 살아갈 때 금수저를 가진 사람들이 반칙을 통해 특혜를 누리고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헬조선이 됐다”고 말했던 점을 상기 하길 바란다.

야당은 지나친 정쟁을 멈춰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진실규명이다. 더는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검찰이 공명정당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검찰의 견제·감시, 의혹 제기는 언론에 맡기자. 검찰 수사 결과가 못 미더우면 그때 가서 문제를 다시 거론 해도 늦지 않다.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한 사건이 지금과 같은 국론분열로 이어진 데는 검찰의 늑장 수사도 한몫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사상 최악의 실업난에 청년 구직자들은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 하루 버티기 어렵다며 자녀를 보면 눈물만 난다고 한다.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정리해고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면 여야는 당장 ‘추미애 파일’을 닫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 lawsdm@



핑크빛 정원에서 가을 정취 만끽 비와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17일 전남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핑크몰리 정원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LG,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만든다

‘LG에너지솔루션’ 12월 출범…LG화학이 지분 100% 보유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할한 ‘LG에너지솔루션’ (가칭)을 12월 출범시킨다.

▶관련기사 3·16면

LG화학은 17일 오전 개최한 이사회에서 회사분할안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은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후 12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분할은 LG화학이 배터리 신설법인

의 발행 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물적 분할 방식으로, LG화학이 비상장 신설법인 지분 100%를 갖는다. LG화학은 사업 분할을 통해 추후 기업공개 시 대규모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사업부문별로 독립적 재무구조 체제를 확립해 재무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LG화학 관계자는 “배터리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구조적

이익 창출이 본격화하고 있는 현시점을 회사 분할의 적기라고 판단했다”며 “전문 사업분야에 집중할 수 있고, 경영 효율성도 한층 증대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신설법인의 매출을 2024년까지 30조 원 이상 달성, 배터리 중심의 세계 최고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배터리 사업부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약 13조 원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택배기사, 추석 앞두고 분류 거부 ‘비상’

21일부터 4000명 참여…대형마트 등 선물배송 차질 우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대란 조짐에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택배 기사들이 추석 앞두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명절 대목을 맞은 유통업계의 선물 배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택배대책위)’는 17일 서울 정동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이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배송을 해야만 하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 이유”라며 “하루 13~16시간 노동의 절반을 분류작업에 매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의 분류작업 거부에는 4000여 명의 택배기사가 참여한다. 이는 전체 택배기사의 10% 수준이지만, 물량이 몰리는 추석시즌 유통업계가 단기 배송직원을 늘려왔던 점을 감안하면 배송 차질이 불가피하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보통 추석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15~20% 이상 물량이 증가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고향 방문 대신

선물로 대체하는 이가 늘면서 배달 수요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추석 선물세트를 택배로 배송하는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구매한 후 지정일 배송을 신청받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하는 21일 이전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물류기업과 배송 계약을 체결한 유통업체들은 즉각 대책회의에 들어가 협력사에 조합원 비중을 확인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직배송하는 유통업체들은 과거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적용한 대책까지 재검토하고 있다. 당시 배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유통업체들은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임직원과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들을 배송 현장에 긴급 투입하기도 했다.

이커머스 관계자는 “이커머스 특성상 고객에게 구매한 제품은 모두 택배로 배송되기 때문에 배송 거부 참여 인원이 적더라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텐센트 운영 모바일 메신저〉

트럼프 ‘위챗 금지령’에 애플 주가 3% 급락 ‘나비효과’

텐센트 제재 ‘폭풍전야’

중국 화웨이테크놀로지에 이어 텐센트 홀딩스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나비효과’가 미칠 파장에 상당수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국 IT 거물 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 사용이 차단되는 데 따른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지수는 0.13% 올랐지만, S&P500지수는 0.46%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25% 내려 상대적으로 다른 지수에 비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애플(-2.95%)과 테슬라(-1.78%), 아마존닷컴(-2.47%) 등 나스닥 대장주들이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최소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는 등 호재가 있었는데도 증시가 맥을 못 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위챗 금지령’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오

제재 발효 ‘후폭풍’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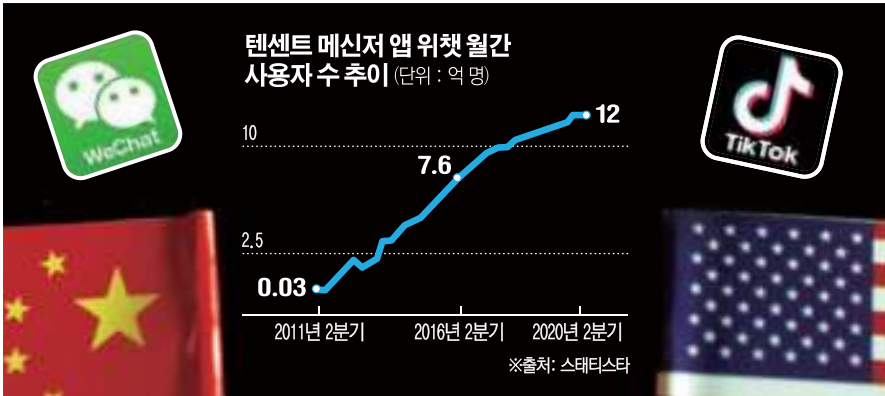
중서 아이폰 ‘위챗’ 설치 불가 팬 애플 전체 매출 30% 증발 불가피
中 보복에 對美 투자 위축 가능성

살얼음판 걷는 증시

연준 ‘제로금리 유지’ 시그널에도
아마존·테슬라 등 대장주 줄하락

면서 시장이 부담을 느낀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위챗과 틱톡 등 중국의 인기 있는 앱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들 앱의 모회사인 텐센트와 바이트댄스가 미국 기업, 시민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공산당이 위챗을 통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나 비밀정보에 접근할 우려가 있고, 또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시민을 감시한다는 명분이다.



특히 기업과 투자자들은 ‘위챗’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는 데 충격을 받고 있다. 위챗은 전 세계 이용자가 약 12억 명으로 중국 인구수와 맞먹는다. 20개 언어로 2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용된다. 더 나아가 위챗 플랫폼은 중국인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프라다. 중국에서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혹은 위챗페이로 결제하는 걸 선호하는 데다 송금 기능, 전화 통화와 소셜미디어 기능, 게임 등 일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고 있어서다.

비영리단체 ‘US위챗사용자연맹’ 등은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 기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업무나 개인적인 용도로 위챗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기업과 관련한 제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애플이다. 저명한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인 TFI증권의 귀밍치는 “중국에서 아이폰에 위챗 앱을 설치하

지 못하게 되면 애플 전체 매출의 30%가 증발할 수 있다”며 “중국은 아이폰 매출의 30%,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한다. 에어팟과 아이패드, 애플워치와 맥컴퓨터 등 다른 기기 매출 감소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면 애플에 부품 등을 납품하던 글로벌 공급망까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는 트럼프 정부가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의 위챗 금지령을 미국에 국한할지 또는 해외에서도 적용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에 반발해 중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텐센트의 경우, 세계적인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와 ‘리그오브레전드’를 만든 라이엇게임즈, 우버테크놀로지, 스냅 등 미국 유명 기업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는 “텐센트가 이들 기업에서의 투자를 회수해 보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대미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혼추족·혼캉스... ‘위드 코로나’ 혼코노미 전성시대

간편식 할인·소용량 한우세트 등 유통업계 ‘나홀로족 잡기’ 열전

올해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귀경이나 귀성 없이 ‘나홀로 추석’을 보내는 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철도공사의 추석 명절 기간(9월 29일~10월 4일) 상·하행 기차표 예매가 실시된 이달 8일과 9일 판매된 좌석 수는 지난해 추석 판매된 좌석 수(85만 석)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유통업계는 추석 혼족을 겨냥한 ‘혼코노미’(1인과 경제를 뜻



현대백화점이 1인 가구를 겨냥해 10년 만에 출시한 9만 원짜리 소용량 ‘냉장’ 한우 선물세트 ‘현대 한우 소담 성’.

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 마케팅을 준비하며 ‘혼추족’ 정조준에 나서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30.2%(614만7516가구)를 기록했

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며 혼코노미가 어느 때보다 전성기를 맞을 것으로 점쳐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대 일상 생활에 필수로 자리한 편의점은 혼추족 명절 밥상 챙기기에 나섰다.

CU는 17일부터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에서 오투기 겹밥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쿠폰 1만 장을 판매한다.

이 쿠폰은 티몬의 필수특가딜 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결제를 완료하면 모바일 쿠폰 형태로 구매자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급된다. 1인당 최대 5매까지 구매 가능하다.

세븐일레븐은 혼밥족을 겨냥해 집밥의 아이콘인 배우 김수미 이름을 내건 수미네 간편식 시리즈를 이날 신제품으로 선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편의점 도시락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실제 이달 들어 14일까지 세븐일레븐의 도시락 매출은 전년 대비 26.3% 늘어났다.

백화점 업계도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추석 선물세트 중 소포장한 10만 원 이하 선물세트 종류를 지난해 추석보다 30%가량, 물량도 50%가량 늘렸다.

특히 10년 만에 출시한 9만 원짜리 ‘냉장’ 한우 선물세트인 ‘현대 한우 소담 성’

(0.8kg)이 눈에 띈다. 한우를 450g씩 포장해 총 3~4kg으로 구성된 기존의 20만~40만 원대 한우 선물세트와 달리, 200g씩 소분해 총 0.8kg으로 구성, 실속을 높였다.

신세계백화점은 혼자 추석을 보내면서도 명절 음식을 알차게 먹을 수 있도록 1인 명절 도시락을 3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별다른 식재료를 구매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명절 상차림을 할 수 있는 ‘시화당 명절 상차림 세트’를 25만 원에 출시했다.

호텔업계는 추석 연휴에 여유로운 ‘혼캉스 패키지’를 제안하며 혼족을 유혹한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가을을 맞아 혼자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캉스를 즐길 수 있는 ‘셀프 치휴(治休) 트립’ 패키지를 내놨다. 이 패키지는 아와 오션스파 ‘씨메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제한 이용권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중추가절

올해도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보내세요.

유한양행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철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의결: 2019-1498-000901]

마음을 담아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베콤·씨[®]정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상장으로 실탄확보... “2024년 매출 30兆” 초격차 승부

LG화학, 배터리 독립 왜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신설법인인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 배터리 사업 역량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왕좌를 지키고 2024년 매출액 30조 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수조 원의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LG화학의 이번 분사 결정은 배터리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란 평가가 나온다.

LG화학은 올해 2분기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구조적 이익 창출 기반을 마련한 것은 물론 배터리 사업에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LG화학은 올해 1~7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25.1%로 1위를 차지했다.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 역시 150조 원 이상을 확보해 독립한 후에도 상당한 수익이 기대된다.

우호적 사업 환경에 더해 매년 수조 원의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할을 결정한 이유다.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은 매년 4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 단계에 진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기업공개(IPO)에 나서거나 글로벌 완성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위해 재무적 투자자(FI)를

전기차 배터리 산업, 年 40% 고성장 분사후 FI 유치, 대규모 투자금 마련 내년 하반기 IPO 추진 가능성 점쳐 초대 CEO, 신학철·김종현 등 거론

유치하면 대규모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와 비교해 2차전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완성차 OEM 기업들이 배터리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FI를 자처하고 있고 합작사(JV)를 통한 물량 확보에 공들이고 있어 만약 LG에너지솔루션이 이러한 자금 조달에 나선다면 '러브콜'이 쇄도할 가능성이 크다.

LG화학 관계자는 “(IPO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으나, 추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자금은 사업 활동에서 창출되는 현금을 활용하고, LG화학이 100% 지분을 갖고 있어 필요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IPO를 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 사전 기업공개(Pre-IPO·상장을 전제로 한 투자 유치)에 나선 뒤 같은 해 하반기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LG화학은 배터리 소재, 셀, 팩 제조 및 판매뿐만 아니라 배터리 케어·리스·충전·재사용 등 배터리 생애(Lifetime) 전반에

LG화학 2차전지 사업연혁

1995	리튬이온전지 개발 시작
1998	국내 최초 리튬이온전지 상업화 및 대량생산체제 구축(50만 셀/월)
2007	세계 최초 삼성분계 * NCM 배터리 양산
2011	중국 오창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
2012	미국 미시간주 플랜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
2015	중국 난징 전기차 배터리 1공장 준공
2018	유럽 폴란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
2019	미국 제너럴모터스와 전기차 배터리 JV 설립 계약 체결
2019	중국 난징 전기차 배터리 2공장 준공
2020	배터리 사업 분사 발표

* NCM 배터리: 배터리 양극재가 니켈, 코발트, 망간 3성분으로 이뤄진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가칭)

사업부문	전지사업 (자동차전지, ESS전지, 소형전지)
주주총회 예정일	2020년 10월 30일
분할기일	2020년 12월 1일
자본금	1000억 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E-플랫폼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신설법인을 육성할 방침이다.

전지 사업의 분할로 임직원 사이에서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배터리를 장기적 주력 사업으로 삼았고 최근에는 흑자까지 달성, 수익성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급 등 임직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또한 IPO를 추진할 경우 우리

사주 배정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초창기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차세대 기술의 방향성이 확고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출범이 석 달여 남은 시점에 최고경영자(CEO)에 관한 관심도 높다. 내부에서는 1984년 입사 후 전지 사업부문에서 근무를 시작해 주요 고객사와 수주 확보, 최대 매출 달성을 이룬 김종현 전지사업본부장(사장)의 낙점 가능성

을 높게 본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터리 사업의 글로벌 비중이 높은 만큼 3M 출신의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LG화학은 그동안 배터리에 쏟아부었던 투자를 남은 세 사업부(석유화학·첨단소재·생명과학)에 투입할 예정이다. 적기에 필요한 투자를 집중해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글로벌 톱5 화학회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김바리 기자 kimstar1215@

LG화학 ‘배터리 독립’ 발표한 날 ‘38년 배터리 역사’ 꺼낸 SK이노

“1982년 최중현 선대회장 구상” 특허소송 유리한 고지 선점 포석

SK이노베이션이 공교롭게도 경쟁사인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분사를 발표한 17일 1982년부터 진행한 자사 배터리 사업의 역사를 공개했다.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 LG화학과 진행 중인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배터리 사업의 후발주자’가 아닌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회사’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배터리 사업을 향한 꿈은 선경그룹이 인수한 대한석유공사 사명을 ‘유공’으로 바꾼 1982년 시작됐다”며 “당시 ‘종합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축적 배터리 시스템’을 미래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그 출발선”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을 처음 구상한 시점이 1982년 12월 9일 열린 ‘최중현 선대회장과 유공 부과장 간담회’라고 설명했다.

최 선대회장은 이 자리에서 “석유가 지하자원이므로 그 사업 또한 한계가 있고 더욱이 공해문제가 뒤따르고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배터리 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공은 정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지금의 대덕 기술혁신연구원인 ‘기술지원연구소’를 1985년 설립했으며, 1991년부터 전기차에 필요한 첨단 배터리 개발을 시작한다. 배터리 개발에 착수한 지 2년 만인 1993년에는 한 번 충전으로 약 12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와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주장의 근거로 1993년 1월 유공이 전기를 개발했다고 보도한 신문 기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해당 기사를 통



SK이노베이션 연구원이 자사 배터리를 들고 있다.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해 1992년 당시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세계적으로 캐나다의 HBS, 독일의 HBB, 영국의 클로라이드, 일본의 NDK 등 4개사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2012년 세계 최초로 배터리의 힘과 주행거리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양극재를 구성하는 금속인 니켈-코발트-망간 비율을 각각 60%, 20%, 20%로 배합한 NCM622 양극재를 적용한 배터리를 개발했고 2014년 양산에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보다 진화한 NCM811 양극재를 적용한 배터리도 201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2018년부터 양산 중”이라며 “더 나아가 NCM9 1/2 1/2(구반반) 양극재를 적용한 배터리 개발에 지난해 세계 최초로 성공했으며, 현재 OEM사의 수요에 맞춰 2022년 양산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이처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의 역사를 공개한 것은 LG화학과의 소송에서 핵심 인력 영입을 통한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사의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 다음 달 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중 어떤 회사가 승소할지 주목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The history of

눈부신 자생의 힘
빛나는 피부의 변화

비첩 자생 에센스

“귀한 마음 그대로
찬란하게 빛나는 선물,
지금 전하세요,,

비첩 자생 에센스 2종 세트

비첩 자생 에센스 50ml
비첩 자생 에센스 20ml

천기단 화현 밸런스 25ml, 화현 로션 25ml
화현 일루미네이팅 에센스 8ml,
화현 아이세럼 5ml, 화현 클렌징 폼 50ml

왕후의 비밀 - 후

• 전국 유명 백화점 매장 및 방문판매 카운셀러를 통하여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080-023-7007 / www.whoo.co.kr

연준, 2023년까지 제로금리… “물가 2% 달성해야 해제”

FOMC서 기준금리 0.00~0.25%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적어도 3년 동안은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 아울러 성명문에 제로금리 해제 조건을 명시하면서, 저금리 정책을 시장에 확약하는 ‘포워드 가이드’를 도입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내놓은 성명에서 현 0.00~0.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증폭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1%포인트 전격 인하한 뒤 계속해서 동결해 왔는데, 이후 4번째 열린 이번 FOMC 회의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미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동안은 제로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연준은 이날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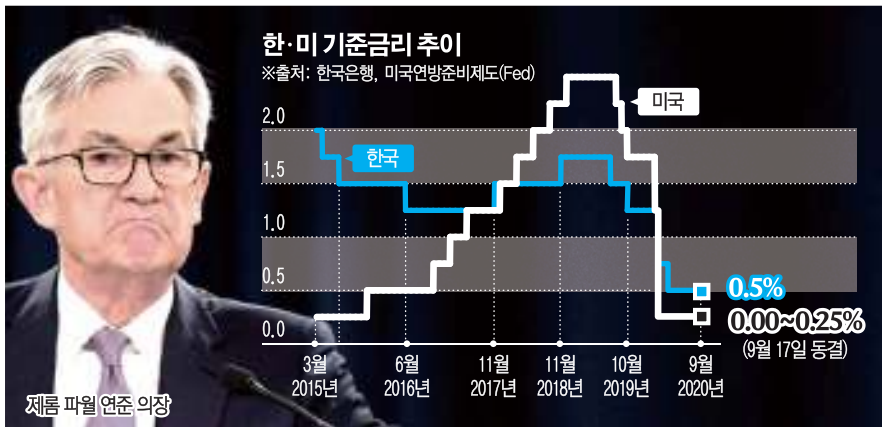
코로나 따른 경기침체 대응 ‘포워드 가이드’ 도입도 국채 매입 등 양적완화 지속

점도표(dot plot)를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방침이 간접적으로 나타났다.

점도표에 나타난 2023년까지 금리 중간값은 0.1%였다. 소수의 위원이 2022년이나 2023년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이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우위를 점했다.

투표권이 없는 FOMC 위원들을 비롯한 17명의 위원 모두가 내년까지 현행 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의견을 낸 사람은 16명, 2023년까지는 13명이었다.

또한 연준은 성명문에 제로금리를 해제하는 조건을 3가지 포함하면서, 포워드 가



이던스를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포워드 가이드는 금융정책의 방침을 수치로 제시, 장기적인 저금리 정책을 시장에 확약하는 것이다. 연준은 △FOMC의 최대고용 평가와 부합하는 수준까지 노동시장 조건이 회복하고 △물가가 2%까지 오르며 △물가상승률이 일정 기간 2%를 완만하게 상회하는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현행 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성명문에 금리 인상의 조건을 명시하면, 저금리 정책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나 기업가의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고 일본 니혼게이아이신문(닛케이)은 평가했다.

또한 이번 성명에는 새로 정한 장기적인 정책 틀인 ‘평균물가안정 목표제’가 반영됐다. 통화정책 목표를 기존 ‘최대 고용과 조화로운 2% 물가 목표 달성’에서 ‘최대 고용과 장기간에 걸친 2% 물가 달성’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 새로운 정책 지침은 물가가 계속해서 2% 목표치를 밑도는 경우 일정 기간 2%가 넘는 것을 허용하게 돼 있다. 물가가 단기간 2%를 넘더라도 기준금

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열린 연례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통화정책 체제를 공식화한 바 있다.

아울러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향후 몇 달 동안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의 보유를 최소한 현재 속도로 늘리겠다고 밝혀 양적완화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 또한 재확인했다.

연준의 이러한 기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느릴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확장적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은행(BOJ)은 17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현상 유지를 결정했다. 닛케이에 연준의 장기간 초저금리 유지 방침에 연화강세와 그에 따른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일본은행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풀이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남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그린뉴딜 추진기업인 두산중공업을 방문, 가스터빈 고온부품공장에서 가스터빈 블레이드 조립 과정을 시찰하고 있다. 뉴시스

노후 산업단지 ‘환골탈태’

‘스마트그린산업’ 본격 추진 첨단산업·재생에너지 융합 제한업종 외 기업 입주 허용

정부가 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첨단 산업기지로 바꾸기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마트그린산업 보고대회’에서 ‘스마트그린산업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스마트그린산업은 △창원 △반월·시화 △구미 △인천 △남동 △광주 △여수 △대구 △성서 등 기존 7개 스마트산단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융합한 개념이다. 개별기업의 스마트화와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넘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우선 정부는 디자인·설계·생산·유통·물류 등 산업 가치사슬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단 산업시설구역 총면적 30% 이내에 명시적 제한업종 이외의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으로 광주첨단(무인저속 특장차), 경남창원(무인선박), 대구성

서(이동식 협동로봇) 등 단지별 실증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도 속도를 낸다. 산단 태양광 금융지원 사업 비용을 올해 1000억 원에서 내년 2000억 원으로 늘리고 산단 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인증서(REC)를 지원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생산단계부터 공정 개선과 설비교체를 통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클린 팩토리 사업’을 2025년까지 7개 산단 700개소로 확대한다.

산단 내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그린 전환 관련 직무 교육을 운영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창업 공간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존 7개 산단에 대한 전환 작업을 마친 뒤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2025년까지 총 15개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3만3000개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을 0.6%에서 10.0%까지 늘리는 한편 에너지효율을 16% 향상한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추진과 더불어, 상생의 정신으로 기업 노사가 합심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주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방지법’ 대거 쏟아낸다

‘신탁법·재발방지법’ 포함될 듯 사모펀드 관련 자본법도 손질

국민의힘이 라임, 옵티머스 등과 같은 대규모 사모펀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거 쏟아낸다. 여기에는 재발방지법 개정안, 신탁법 활용 법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7월 출범한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특위)는 간사이자 당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윤창현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을 다수 발의할 예정이다.

우선 다양한 재발방지 관련법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사모펀드 관련 제도에 대한 개정안(재정비), ‘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행위·피해 사례 원인 제공’ 당사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법안 등이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

된 자본시장법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의원은 “사모펀드 관련법 개정안은 시장 제한보다는 정비에 가까울 것”이라며 “방향을 제대로 잡아준다면 시장은 유지하되 잘못된 상품 여부는 판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 개인 차원에서 준비 중인 법안들도 있다. 특히 신탁법·신탁업법 등을 활용한 제도의 다양화를 고려하고 있다.

이번 피해자 대부분이 여유자금이 있지만 금융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노령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사모펀드보다 발전된 개념의 신탁상품을 개발해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즉 관련 상품 제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위탁자(금융기관)가 고객 자금의 운용 방식과 손실 부담을 모두 책임지는 특정금전신탁과 같은 상품이다.

특위는 사모펀드 이슈를 재점화하고 이후 세미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내용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를 토대로 앞서 제시된 법안들을 최종 발의할 방침이다.

앞서 특위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연루 대상, 수사 의지 등에 대해 지적하며 관련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한편, 특위는 7월 9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라임 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유의동 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전문가 윤창현 의원, 부장검사 출신 김용·유상범 의원, 벤처기업 CEO 출신 이영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현재 윤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재발방지 법안 입법팀’과 김 의원 등으로 구성된 ‘사건 진상규명팀’으로 나뉘어 2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미가입 시 과태료 300만원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현재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경우 특약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지만 보상금액이 500만 원 정도

로 낮고, 보험이 거부되기도 한다. 또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맹견이 월령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또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000만 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면 1500만 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5년 전 예고됐던 人災… 줄 잇는 사고에 ‘뒷북 규제’

사회 초년생 권모 씨는 테테크 수단의
로 개인 간 거래(P2P) 금융회사를 선택
했다. P2P금융은 차주에게 다수의 투자자
들로부터 모은 돈을 빌려주고, 투자자들은
약속한 기간 이자를 받는 개념이다. 권 씨는
은행 예금 금리가 1~2%인 데에 반해, 10%
안팎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P2P금융에 매
력을 느꼈다. 결국 그는 올해 초 10만 원대
로 시작해 8월까지 총 4300만 원을 투자했
다. 최근 권 씨가 투자한 P2P 업체 중 3군데
이상이 원금 및 이자 상환 지연을 알렸다.

권 씨와 같은 투자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
융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이 시행됐다. P2P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기자본 등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현재 P
2P 업체 237곳 중 146곳이 금융당국이 요
청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
했다. 이들 업체의 대출 잔액은 약 5095억
원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은 자칫 이 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폐업
업체의 투자금 반환문제는 민·형사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P2P금융은 높은 수익률에 투자자가 몰리
다 보니,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노출됐다. 관
련 제도와 법령이 미비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는 2015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법적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

금융당국, 위험성 인지했지만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 ‘허점’

업계 고성장 속 투자자 보호 뒷전
민원 접수 4년 새 1만3350% 늘어

온투법 시행, 1년 유예기간 부여
기준 미달 업체도 영업 지속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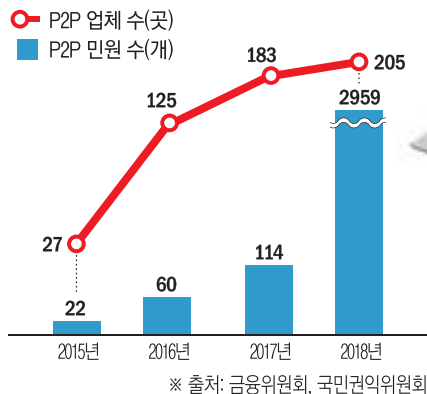
인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에 나섰지만, 허위
공시·횡령 등 사고는 그대로 노출됐다.

2015년부터 P2P 대출의 법제화를 주장
해온 한 P2P 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스타트업에는 피곤한 일이지
만 그런 게 없다면 고객이 신뢰를 잃고 떠
날 수 있다”며 “당장은 불편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감독은 필요했다”고 지적
했다. 이 관계자는 “돈이 물리는 곳에 범죄
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비슷한 시기 같은 주장을 한 김자봉 한국
금융연구원 박사는 “P2P 업체는 중개 업체
로 은행처럼 감독 당국에 충분한 규제를 받
는 데가 아니다”며 “그런 점에서 당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P2P금융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점이다. 2015
년 2월 진용섭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P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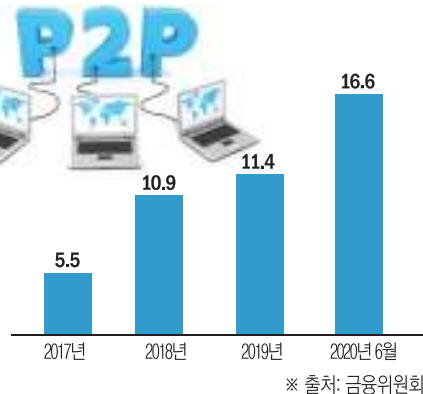
P2P금융 민원 추이



대출의 감독 방향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금융위
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해 6월
한국은행도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위
해서는 투자자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효과적인 규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지
만 P2P금융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기가 쉽
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P2P금융을 핀테
크 산업의 대표주자로 꼽으면서 여러 부작
용을 우려했지만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런 사이 P2P금융 시장은 고성장을 거
듭하고,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렸다.

141개 P2P 업체 평균 연체율(단위: %)



P2P금융업체는 2006년 1세대적인 머니
옥션을 시작으로 2015년 27개, 2016년
125개, 2017년 183개, 2018년 205개로
늘어났다. 무법지대 속 업체 수는 4년 동
안 700%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업체 수
가 많아지면서 P2P 민원 또한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P2P금융 관련 민원은 2015년 22
건에서 2018년 2959건으로 늘었다. 4년
사이 1만3350% 늘었다.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이라며 띄워
주기에 바빴던 정부. P2P금융에 대한 민

원이 급증하자, 2017년 2월이 돼서야 법
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
다.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P2P
업체가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별도로
관리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
다. P2P 업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닌 셈이다.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에 P2P금융의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2018년 헤라펀딩
은 투자금 130억 원가량을 미상환한 채 부
도를 냈다. 아나리츠의 대표와 재무이사는
투자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그 다음 해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
에도 사기, 횡령 등 P2P 업체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에서야 온투법이 시행됐지만 여
전히 미비점은 남아 있다. 기존 P2P업을
하던 업체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어 요건
을 갖추지 못해도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온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코리아펀딩과 타겟펀딩 등은 다수의 상품
에 대해 상환 지급 지연을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문수빈 기자 bean@

“건전성 관리에 고립된 P2P 특화된 영업 모델 창출해야”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P2P(개인 간 금융) 업체는 기존 금융
회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뤄야
합니다.”

이규복<사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15
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P2P금융의 새
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간
P2P 업체의 부실에 따른 건전성에만 주목
했던 시각에서 탈피해 P2P 시장의 활성화
를 위한 색다른 미래를 그린 것이다. 이 박
사는 “건강한 P2P금융은 좋은 영업 모델을
가져올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년 전 P2P 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한 후
우리 사회는 P2P 업체에 대한 논의를 지속
해왔다. 그 초점은 투자자 피해 방지 차원
에서 ‘건전성’이었다. 이에 각 업체들은 금
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연체율 15% 초과 사
항, 부실채권 매각 등에 대한 중요 사건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이전엔 P
2P 협회 가입사들에 한해 월별로 누적대출
액 등을 자율 공시가 이뤄졌다.

이 박사는 P2P 업체의 건전성도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지만 “금융산업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기대를 했던 영업 모델이 있다”
고 전망했다. 그는 “예컨대 P2P 업체가 빅
데이터나 인공지능(AI)을 사용해 기존 금
융사가 하지 못했던 신용 평가를 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금융
사는 평판 리스크
를 관리하는 분위
기 때문에 취급하
지 못하는 상품이
있다”며 “P2P 업체
는 상대적으로 덜

하니 어느 한 군데에 특화된 영업 모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금융은 신뢰 산업으로 규제를 받
는데 P2P금융은 규제가 제대로 미치지 않
는 영역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P2P금
융은 중개 모델이라 양을 키워야 수익이
난다”면서 “그런 모델이라면 당연히 문제
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박사
는 “법제화가 좀 더 빨랐으면 (건전성 문제
부분) 사정이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P2P금융의 바람직한 해외 사
례로 영국을 들었다. 그는 “영국은 금융 문
제가 많은데도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한다”
며 “당국이 P2P금융 육성과 함께 제도 개
선에 적극적인 모습이 있다”고 말했다. 영
국 P2P 업체는 영국 금융청(FCA)의 인
가하에 영업을 하고 있다. 자본금은 5만
파운드를 최소 한도로 대출 잔액에 따라
계단형으로 증액되는 방식을 택했다.

문수빈 기자 bean@

P2P 부실에 속타는 투자자

▶1면서 계속

이 회사 투자자 50대 D 씨는 담보 제공을
한 상품을 신뢰했다. 투자 초기 은행 예금 이
자보다 높은 수익률에 가족까지 끌어들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몇 백 명이 단채로 피해

를 보고 있는데,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현
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사기 친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길을 찾을 것 같다”고 허탈해했다.

블루문펀드 대표이사 김모 씨는 현재 해
외에 잠적한 상태다. 정확한 피해자와 피해
액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블루문
펀드는 40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570억
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후 영업을 중단했다.

지중해의 순수그릭커피 이카리아

세계 5대 장수촌인
그리스 이카리아 지역 추출법을
사용한 프리미엄 그릭커피

450 ml (15 kcal)
고카페인 함유(카페인 250 mg)

1 클래식한 그리스식 추출법
원두를 갈아 용기에 넣어
물을 붓고 저으며 끓이는
클래식하고 진한 추출법

2 풍부한 바디감과 깔끔한 맛
콜롬비아 슈프리모 70%,
에티오피아 시다모 30%를
블렌딩한 프리미엄 커피

3 Three Step Filtered Greek Coffee
3번의 여과 과정을 거친
폴리페놀이 풍부한 그릭추출
(폴리페놀 함량 560mg)

소니·MS 게임콘솔 가격 비교					
소니			마이크로소프트(MS)		
기종	가격(달러)	출시 시기	기종	가격(달러)	
플레이스테이션(PS)	299	1995년	-	-	
PS2	299	2000~01년	엑스박스	299	
PS2	499	2005~06년	엑스박스 360	299.99	
PS2	399	2013년	엑스박스 원	499	
PS5	499.99/399.99	2020년	엑스박스 시리즈X/S	499/299	

길어진 집콕생활, 웬만한 게임 만렙했다면...

7년 만에 신작 들고 온 소니·MS

글로벌 게임기 업계의 강자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7년 만에 강력한 스펙으로 무장한 '플레이스테이션(PS)5'와 '엑스박스 시리즈X'를 각각 들고 귀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집콕족'이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게임업계의 정면 승부에 게임 팬들이 열광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소니의 게임 사업 부문인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는 이날 온라인 행사를 열고 신형 PS 'PS5'를 11월 12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가격은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는 모델이 499.99달러(약 59만 원)로 MS의 '엑스박스 시리즈X'와 똑같이 정해졌다.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는 디지털 에디션은 399.99달러로 책정됐다.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11월 12일에 1차로 출시되고, 나머지 국가는 11월 19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소니는 올 3월 PS5 본체의 스펙을 미리 공개해 일찍부터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소니가 대폭 향상된 PS 시리즈 신작을 공개하는 건 7년 만이다. 신형 PS5에서 소니가 강조하는 것은 825GB 커스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다.

SSD를 탑재해 데이터를 읽어 들이는 속도가 전작의 100배로 향상됐다.

소니 'PS5'·MS '엑박 시리즈X' 11월 출시...59만원 가격 동일
코로나發 게임산업 특수 기대

2GB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27초에 불과해 화면 전환을 기다릴 필요 없다는 점이 유저들을 열광시킨다.

이날 발표 행사에서는 PS5 전용 게임 타이틀인 '파이널판타지16'와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롤플레이 게임(RPG) '호그와트레거시'도 함께 공개됐다. '파이널판타지16'은 PS5와 함께 독점 발매되며 PC 버전도 출시된다. '호그와트레거시'는 내년 출시된다.

MS는 소니보다 이를 앞선 11월 10일에 '엑스박스 시리즈X'와 '시리즈S'를 출시한다. 소니와 마찬가지로 7년 만에 스펙을 대폭 향상시켰다. 시리즈X는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이 12Tflops(테라플롭스)로 PS5를 뛰어넘는다. 가격은 다운로드 전용인 '가성비' 제품 '시리즈S'가 299달러, 시리즈X는 499달러다.

특히 MS는 '엑스박스 올 액세스'라는 구독형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형 게임기와 구독 패키지 '게임패스 얼티미' 24개월 이용권을 함께 구매할 경우 2년간 월 34.99달러(시리즈X 기준)를 내면 2년 후 기기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 패키지는 전 세계 12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금까지의 콘솔대전에서는 소니가 우위를 차지해왔다. 전작인 PS4는 누적 판매 대수가 1억 대를 넘어 큰 성공을 거뒀다. 반면 '엑스박스원'의 추정 판매치는 4800만 대로 PS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이번에는 엑스박스의 시리즈X가 PS5보다 성능 면에서 앞서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점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MS와 소니는 게임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소니의 게임사업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했다. PS4용 소프트웨어 판매도 40% 가까이 늘었다. 소니의 2020회계연도 게임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할 전망이다.

반면 MS의 2분기 게임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엑스박스 콘텐츠 판매도 11% 줄어 코로나19의 수혜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적 발표 당시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가 "엑스박스 게임패스 구독자가 이번 분기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구독형 게임 시장에 기대를 보인 만큼 엑스박스 올 액세스의 성장을 눈여겨볼 만하다.

최혜림 기자 rog@

“틱톡 부분매각 마음 안 든다” 트럼프, 하루 만에 태도돌변

바이트댄스 다수 지분 보유에 불만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동영상 앱 틱톡과 미국 오라클의 제휴에 만족감을 표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 대부분을 계속 보유한다는 데 불만을 표시했다.

한 기자가 “바이트댄스가 틱톡 자산 대부분을 갖고, 오라클은 소수 지분만 인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개념적으로는 싫다고 말할 수 있다”며 “나는 어떤 것도 서명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제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7일 오전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는 게 탐탁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향후 협상 조건을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만 해도 트럼프는 틱톡과 오라클의 합의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협상 타결이 매우 근접했다고 들었다. 이들의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나는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의 팬”이라고 밝혔다.

이랬던 트럼프가 하루 만에 태도를 180도로 바꾼 데 대해 블룸버그는 “오라클과 틱톡의 사업 제휴 방안이 미국의 국가안보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 국무장관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위 관리들은 바이트댄스가 오라클과의 제휴 이후에도 미국 내 1억 명 안팎의 틱톡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 대부분을 유지하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도 그대로 갖는 대신, 오라클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오라클과 바이트댄스는 틱톡 본사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기고 2만 명을 고용할 것이라며 당근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중국 업체가 틱톡 대주주라는 사실에 불만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 지분 과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사의 협력 방안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는 “보안은 100%가 아니면 안 된다”고 강조,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위험이 해소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코로나엔 백신보다 마스크”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레드필드 국장은 “마스크가 백신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정보”라고 반박했다. 워싱턴D.C./신화연합뉴스

“버핏, 역시 귀재”... 스노플레이크로 ‘1兆 잭팟’

상장 첫날 111.6% 급등... 하루새 지분 평가액 2배 늘어

귀재는 귀재였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가 회장이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스노플레이크 베팅으로 1조 원 가까운 잭팟을 터트렸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노플레이크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첫날인 이날, 소프트웨어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 기록을 세웠다.

이날 스노플레이크 주가는 245달러(약 28만 원)로 시작해 253.93달러에 장을 마쳤다. 공모가 120달러에서 무려 111.6%나 폭등했다. 장중 한때는 165.8% 오른 319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날 증가 기준 기업가치도 704억 달러로, 우버테크놀로지(660억 달러), 델(503억 달러), 제너럴모터스(455억 달러)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제쳤다. 스노플레이크의 상장 대박 조짐은 일찌감치 감지됐다. 스노플레이크는 I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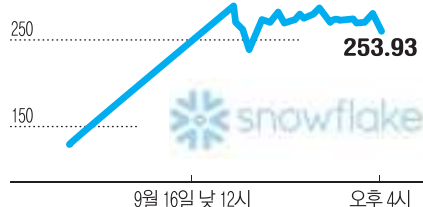
열풍과 ‘버핏 효과’에 힘입어 소문을 듣고 몰려든 투자자들로 공모가를 잇달아 상향했다. 애초에 예상 공모가는 75~85달러로 제시했으나, 14일에는 100~110달러로 31% 상향 조정하더니 하루 만에 120달러로 더 올랐다.

WSJ는 저금리 시조와 기술 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해도 스노플레이크의 상장 첫날 성적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이날 블록버스터급 성공은 ‘가치 투자의 귀재’ 버핏이 보증을 선 덕분이라는 평가다. 여가다 소프트웨어 업계 강자인 세일즈포스까지 스노플레이크 주식을 사들이면서 시장에 신뢰감을 더했다.

버핏은 ‘잘 모르는 분야인 IT엔 투자하지 않는다’는 투자 철학을 깨고 애플에 이어 스노플레이크에도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상장 이후 시초가로 404만 주를

스노플레이크 추가 추이
(단위 : 달러, 현지시간 증가 기준)



더 사들였다. 이에 이날 증가 기준, 버크셔의 스노플레이크 지분가치는 15억5000만 달러로 불어났다. IPO 공모가를 기준으로 하면 8억 달러(약 9407억 원) 이상의 이득을 본 셈이다.

2012년 창업한 스노플레이크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저장업체로 기업들에 신개념 통합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 자리 잡았다. 7월 말 현재 ‘포천 500대 기업’에 속한 146개사를 포함해 3000여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LVMH-티파니 결별에 웃음 짓는 리치몬트

인수 차기 후보 물망... 주가 급등

세계 최대 명품그룹인 프랑스 루이비통 모에헤네시(LVMH)의 미국 주얼리 업체 티파니 인수가 불발되면서 투자자들이 제3의 기업에 베팅하고 있다. LVMH가 티파니 대신 다른 명품 브랜드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주 LVMH의 티파니 인수 무산 소식이 전해진 뒤 ‘까르띠에’와 ‘반클리프앤애펠’ 등 세계적 명품 브랜드를 거느린 스위스 리치몬트의 주가가 일주일 새 6% 급등했다. 다른 명품 브랜드 ‘몽클레어’와 ‘버버리’ 주가도 각각 11%, 5% 뛰었다.

전날 발표된 중국의 8월 소매판매가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월 수준을 회복한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이지만, 이들 기업 주가는 그 이전부터 뛰었다.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LVMH가 티파니 인수를 철회한 후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이 다른 명품 브랜드 인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리치몬트 주가가 급등한 건 두 회사가 합병하면 시너지가 극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LVMH가 리치몬트와 합치면 시계·주얼리 부문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된다. 이 부문은 2019년 LVMH 그룹 전체 매출의 8%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최혜림 기자 rog@



IT의 힘으로 AI의 미래로

대한민국 IT 역사를 개척해온 송실,
송실의 DNA에는 AI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학생부종합전형(SSU미래인재) 83명 모집

- 접수기간 | 2020년 9월 24일(목) 10:00 ~ 9월 28일(월) 18:00
- 입학안내 | 02-820-0050~4
- 홈페이지 | admission.ssu.ac.kr
- 논술고사 일정 | 2020년 12월 4일(금) ~ 12월 5일(토)

기아차, 하루 1800억 손실...산업계 코로나 섯다운 경보

소하리공장 관련 11명 집단감염
기아차 생산 물량의 10% 올스톱
신형 카니발 출고 대기만 4만대
수도권 한국지엠·쌍용차도 긴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도 용인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완성차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섯다운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17일 기아차와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소하리공장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모두 11명(직원 8명·가족 3명)으로 집계됐다. 동선이 겹치는 직원 200여 명에 대한 추가 검사가 진행된 만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경기도 보건당국은 “경기도와 질병



17일 근무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된 기아차 소하리 공장.

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밀접접촉자가 추가로 파악될 경우 추가 진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5800여 명이 근무 중인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서는 1공장이 신형 카니발과 K9, 스텔러 마이스터를 생산 중이다. 2공장에서는 리오(수출형)와 스톨닉 등이 나온다. 신형 카니발의 경우 사전계약 물량을 포함, 출고 대기 물량이 4만 대에 달할 만큼 1분 1초가 절실한 상황이다.

업체에 따르면 소하리 1, 2공장 하루 휴업에 따른 매출 손실은 18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이 공장 주간과 야간 근로자가 각각 4시간과 5시간씩 부분 파업을 단행할 당시 회사 측이 추산한 생산 차질은 1100대 수준이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은 약 1000억 원 규모다. 50% 부분파업에 따른 손실이 이만큼이라면 단순 계산으로도 하루 휴업에 따른 매출 손실이 2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하리 공장의 연간 생산량 32만 대는 기아차 전체물량의 10%에 해당한다. 기아

차는 확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 1, 2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정밀 방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아차 소하리 공장의 재가동 역시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차 97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최초 확진자 A씨를 포함한 8명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

회사 측은 다행히 집단감염이 이날 오전 집계 규모에 머무르게 된다면 주말 특근부터 공장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된 가운데 인천 부평(한국지엠 약 1만 명)과 평택(쌍용차 약 3900명) 등 자동차 생산거점에는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기아차 소하리 공장을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자동차 생산 근로자이다.

이들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반에 생활권을 두고 있어 언제든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나아가 최근 2주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26.4%에 달하는 만큼, 누가 언제 확진 판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추가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왕연연구소 역시 지난 6월 확진자 발생으로 일시 폐쇄에 들어간 바 있다. 현대자동차 계열 5개사 33개 동 5300명도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기아차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방역 당국의 검사 대상 확대가 결정된다”라며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잔업과 특근 등 생산계획도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삼성·현대차·LG ‘IDEA’ 63개 수상...K-디자인 저력

〈세계 3대 디자인상〉



삼성전자 ‘비스포크 패밀리허브’



삼성전자 ‘TV 에코패키지’



현대차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벡스’



LG전자 케이블리스 콘셉트 LED 사이니지

삼성 ‘비스포크 패밀리허브 UX’
현대차 웨어러블 로봇 ‘벡스’ 금상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DEA 2020’에서 총 63개 상을 받으며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 받았다.

삼성전자는 해당 공모전에서 48개 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상 내용은 금상 1개, 은상 4개, 동상 4개, 특별상 1개와 본상(Finalist) 38개다.

금상은 ‘비스포크 패밀리허브 UX (BESPOKE Family Hub UX)’가 수상했다. 환경 보호 가치를 내건 ‘TV 에코패키지’는 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조합해 고양이 집이나 TV 테이블 등 다양한 용도로 재사용해 DIY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이외에 은상으로는 △화면 몰입감을 극대화한 QLED 8K TV ‘Q950TS’ △밀레니얼 감성에 맞는 감각적인 비주얼 전략을 선보인 ‘더 세리프 VIS’, 동상에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블트인 키친 인피니트 라인

오븐 △더 세로 VIS 등이 꼽혔다.

LG전자는 총 10개 상을 받았다. 케이블리스(Cable-less) 콘셉트 LED 사이니지가 동상으로 선정됐다. 레고 블록처럼 간편하게 이어 붙이기만 하면 대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LG 올레드 갤러리 TV’는 본상을 수상했고 △LG 시그니처 올레드 8K △‘LG LED All-in-One(올인원)’ 사이니지 △LG 퓨리케어 상하좌우 정수기 △LG 인버터 히트 펌프 온수기 △LG G8X ThinQ

등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는 금상 1개를 포함해 총 5개의 상을 받았다.

현대차는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벡스(VEX)’로 상업·산업 제품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고, 전기차 콘셉트카 ‘45’와 ‘프로페시(Prophecy)’가 자동차·운송 부문에서 각각 동상과 본상을 수상했다. 제네시스의 전용 브랜드 체험관 ‘제네시스 스튜디오 하남’과 ‘G90 특별 전시’도 각각 환경 부문과 디지털 상호작용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 노우리 기자 we1228@

KCC, 실리콘 물적분할

KCC는 17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실리콘 사업 부문을 나눠 자회사 ‘KCC실리콘(가칭)’을 신규설립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CC가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단순·물적 분할 방식이다. KCC는 상장법인으로 남고 신설 자회사 KCC실리콘은 비상장법인이 된다. 분할 기일은 오는 12월 1일이다.

이번 분할은 건자재·도료·실리콘·소재 등 KCC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실리콘 부문을 분리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지분 매각, 외부 투자유치, 전략적 사업 제휴, 기술 협력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KCC는 2003년 국내 최초로 실리콘 제조 기술을 독자 개발해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실리콘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했다. 2011년에는 영국 유기실리콘 제품 생산회사인 바실돈(Basildon)을, 지난해에는 미국 모멘티브퍼포먼스머티리얼스(모멘티브)를 인수했다. KCC 관계자는 “실리콘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사업 부문의 전문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화를 확립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LS일렉트릭 400억 규모 협력사 납품대금 ‘선지급’

LS일렉트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회사의 자금 부담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약 40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조기 지급되는 대금은 오는 9월 25일 정산분으로 이를 3일 앞당겨 22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S일렉트릭은 원자재 대금 결제나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명절 연휴에 즈음해 대금을 미리 지급, 중소 협력회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평소 협력회사를 제2의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설, 추석 등 명절에 앞서 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1억 원 이하 대금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협력회사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대한항공, 美 호텔 살리려 한진인터에 9.5억 달러 대여

“1년 내 상환 유동성 문제 없어”
차입금 갚고 운영 자금 활용
코로나로 상환기간 걸릴 수도

대한항공은 16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서소문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한진인터내셔널(HIC)에 대한 9억 5000만 달러(약 1조1215억 원) 상당의 자금 대여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9억 달러는 한진인터내셔널의 차입금 상환에 활용되며, 5000만 달러는 호텔산업 경색에 따른 운영자금 충당에 활용된다.

한진인터내셔널의 9억달러차입금은 이달 중 만기도래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호텔·오피스 수요 감소 등 시장 상황 악화로 리파이낸싱(자

금 재조달)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이 우선으로 일시적인 금전 대여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3억 달러는 이달 말 대한항공이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한진인터내셔널에 대출한다.

대한항공은 한진인터내셔널에 제공하는 대여금은 1년 이내에 대부분 회수되며 사실상 대한항공의 유동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다. 대한항공은 1년 내 대여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여금 상당 부분을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체 대여금 9억5000만 달러 중 3억 달러는 다음 달 상환받는다.

미국 현지 투자자와 한진인터내셔널 지분 일부 매각과 연계한 브릿지론(단기차입 등에 의해 필요자금을 일

시적으로 조달하는 대출)을 협의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6억5000만 달러는 상환방식이 뚜렷하지 않다. 특히 3억 5000만달러는 호텔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담보대출을 받아 돌려받겠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회복하는 데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지 호텔 시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딪쳐 당장 상환받기는 어렵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인터내셔널은 198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회사로, 대한항공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월서 그랜드 센터를 재건축해 운영 중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SK㈜, 물류사 ESR 지분 매각

SK㈜는 17일 글로벌 물류회사 ESR의 보유주식 중 1억4000만 주를 주당 22.50 홍콩달러(약 3411원)에 블록딜(Block Deal)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블록딜이란 주식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에 매각한 주식은 보유지분 11% 중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각 대금은 4800억 원 규모로 1차로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SK㈜ 측은 설명했다.

이번 블록딜 이후에도 SK㈜는 ESR 지분 6.4%를 보유한다. 16일 종가 기준 보유지분의 가치는 약 7400억 원 수준이다.

2011년 설립된 ESR은 전 세계 물류센터 약 270곳을 운영하는 글로벌 물류 인프라기업이다. 아마존, 알리바바, JD닷컴 등 글로벌 고객사는 200여 곳에 달한다. SK㈜측은 ESR의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 SK㈜가 보유한 잔여지분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kt | NETFLIX

KT와 넷플릭스의 초특급 만남

—— 당신의 일상에 쓰임새 있게 ——



오직 KT에서만, 넷플릭스 3개월 무제한!

KT 5G 고객

대상 : 슈퍼플랜 스페셜 Plus 이상 요금제 이용 고객에 한함

기간 : 2020.8.14 ~ 9.25

혜택 : 넷플릭스 스탠다드 3개월 무제한

올레 tv 고객

대상 : '기가 인터넷 최대 500M 이상 + tv에센스 이상 + 기가지니 2' 신규 결합 가입(3년 약정) 고객에 한함(olleh tv live 상품 및 기본회선 한정)

가입기간 : 2020.8.3 ~ 9.30 접수 후, 2020.10.7 까지 개통한 고객

혜택 : 넷플릭스 프리미엄 3개월 무제한

※ 프로모션 기간 종료 후 넷플릭스 유료 자동 연장되며, 프로모션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이용약관 참조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만든다

중기부 ‘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2.0’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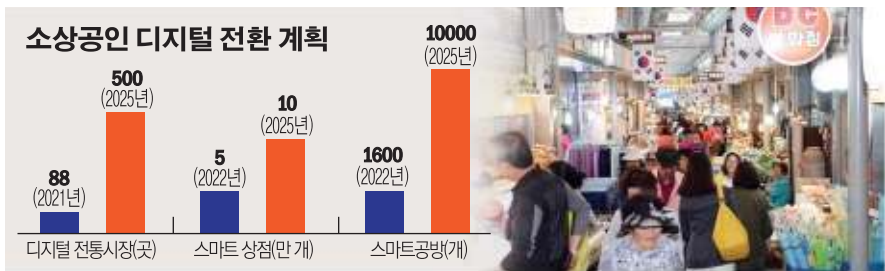
온라인 배달·무선결제·VR 지도 등 디지털 기술 도입
스마트상점 10만곳도…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배달플랫폼 협의체 추진… 간편결제 인프라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디지털 전통시장을 2025년까지 500곳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2.0’을 발표했다.

17일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개정해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6차례 소상공인 대책을 상권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하드웨어적 기반을 마련하는 ‘소상공인 성장·혁신 1.0’으로 규정했다. 이번 발표는 비대면·디지털화의 흐름에 대응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소상공인 성장·혁신

2.0’으로 정의했다.

먼저 중기부는 2025년까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배달, 무선결제, 가상현실(VR) 지도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까지는 88곳을 우선 조성한다. 스마트상점도 2025년까지 10만 개 보급한다. 외식업, 카페, 미용실 등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온라인 등을 적용하는 스마트 상점은 2022년까지 5만 곳 보급한다. 스마트기술(IoT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 공방도 2025년까지 1만개 보급



한다.

중기부는 상생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협력이익공유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정부 국정과제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판매성과 등을 공유하면 정부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 발표 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기부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1대 국회에 제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자발적인 협력이익공유제의 확산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상생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배달플랫폼 협의회(가칭)’도 만들 예정이다. 협의회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협단체, 을지로위원회, 중기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 정례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배달플랫폼 업체들과

의견 수렴 중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이 참여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의견 수렴 뒤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편결제 인프라도 대폭 지원한다. 내년부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AI) 기반 예상 매출액·고객 분석, 업종별 유망상권 추천 등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간편결제 인프라는 내년까지 100만개 이상 지원하고 2023년까지 간편결제 가맹점을 200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7월 기준 간편결제 가맹점은 60만 개다. 내년까지 온라인 쇼핑물과 배달 앱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기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화 정책자금 3000억 원, 스마트 장비 구입 자금 10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 2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제공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아이디어 신선하다더니 결국 기술 가로채”

불공정거래·기술탈취 피해 中企 초청 국회 간담회

티그랑타임·텐덤 등 12개 기업 ‘대기업 횡포’ 호소
김경만 의원 “관련 법안에 업계 목소리 반영 노력”

“2012년 10월 다음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의 담당자와 티그랑타임의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쪽에서도 모바일 광고를 위해 매체를 찾는 중이었다. 티그랑타임이 광고 기반 게임인 만큼 관심을 두더라. 광고 수익만을 노리는 머니헌터들이 쏠릴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도 (티그랑타임의)아이디어가 신선하다는 반응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임태영 아이라이크스타(티그랑 전 대표) 대표가 간담회 이후 이투데이와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17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만 의원과 신정훈 의원, 이동주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나 기술탈취로 직접 피해를 본 12개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실제 겪은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임 대표는 상금을 나눠주는 티그랑타

임만의 독특한 로직을 프렌즈타임에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티그랑타임에서는 광고주가 원하면 100만 원의 상금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도, 10명에게 10만 원을 나눠줄 수도 있다.

임 대표는 “프렌즈타임 시즌2를 시작하면서 티그랑타임의 이 로직을 그대로 가져갔다”라며 “이 게임을 이용한 사람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로직을 가져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해당 게임의 저작권 관련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6월 청구한 상태다.

이날 진행된 ‘피해 중소기업 초청 국회 간담회’에서는 계약 체결 전 사업 논의 단계에서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사례가 공유됐다.

텐덤은 대학리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2016년 ‘애드캠퍼스’를 론칭한 이후 2017년 진학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MOU를 체결하고 데이터를 공유했다. 데이터와 기술자료 및 IR 자료를 공유했으나 이후 진학사가 애드캠퍼스를 표절한 ‘캠퍼스리뷰’를 론칭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후 공동사업과 투자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신한카드의 ‘My 송금’ 서비스가 팩스모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분쟁을 진행 중인 흥성남 팩스모네 대표도 이날 참석했다.

홍 대표는 “작은 기업이라고 꿈과 포부까지 작은 건 아니다”라며 “작은 스타트업들이 큰 꿈을 꾸고 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잠석 업체들 대부분이 국회나 제반 간담회에 많이 참석해 발언했지만 피해 기업들의 애환 해결에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기술탈취 관련해 진전된 법안들이 나와 있는 만큼 이야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키프는 이번 사안과 관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측은 “‘프렌즈타임’ 서비스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방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전하며, “또한 본 건 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소은 기자 gogumee@



SKT, 미스터트롯 노래 담은 ‘시니어폰’ 출시

SK텔레콤은 TV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음악이 탑재된 시니어 전용 휴대폰 ‘갤럭시 A21s VIVA 트롯 edition(A21s VIVA 트롯)’을 18일 출시한다. ‘A21s VIVA 트롯’은 출고가 31만9000원에 중장년층이 보기 편한 6.5인치 HD+급 디스플레이와 아웃포커싱, 접사 등이 가능한 4800만 화소 등 4개 카메라를 장착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FLO)’와의 협업으로 미스터트롯에서 선보인 노래 50곡의 음원이 내장돼 있고, 별도 로그인과 데이터 차감 없이 배경화면의 FLO 위젯을 통해 무료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실손보험금 청구, 페이코에서 하세요”

제휴병원과 진료 데이터 연동
증빙서류 발급없이 간편 청구

NHN페이코는 지앤넷과 제휴를 맺고 페이코에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페이코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페이코 앱에서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우체국보험 등 30여개 보험사의 실손 의료 및 치아보험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페이코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제휴병원의 진료 데이터와 연동돼 이용자가 병원에서 증빙 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

다. 이를 통해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 청구방식 대비 이용자의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였다. ‘페이코’ 앱 내 ‘보험금 청구’ 메뉴에서 기본적인 피보험자 정보만 입력하면 진료내용을 한 번에 조회해 청구서를 전송할 수 있다. 비제휴 병원을 이용한 때도 발급받은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자동 첨부할 수 있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보험·의료 분야 언택트 수요에 맞춰 의료정보전송 플랫폼 업체 지앤넷과 함께 ‘페이코’ 이용자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생활밀착형 플랫폼 ‘페이코’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의 편의를 높이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atiatio@

우체국, 추석 비상근무 돌입… “물류대란 없을 것”

하루 3000명 택배 분류 추가인력 배치… 예산 18.2억 투입

전국 4000여 택배 기사들이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국가 운송업무 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우정본부는 올해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 계획을 정해 1일 3000명의 택배 분류작업 추가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운송 인력이 택배노조에 가담해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견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16일간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 19에 명절 소포 물량 증가까지 겹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작업을 위한 임시인력 추가 배치 및 안벽한 코로나 19 방역 활동을 통해 우정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

로 환경 조성하고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소통 기간 전국 25개 집중국의 소포구분기(33대)를 최대로 가동한다. 추가로 분류작업 등에 필요한 임시인력 하루평균 약 3000명(약 17.6억 원)을 배치하며, 인력수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지방청 등 내근직 근무자도 배치할 예정이다.

운송 차량은 2500대를 증차하는 동시에 배달·분류 인력 안전·복지 활동 등에 약 1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재훈 기자 yes@



‘비대면 추석’ 따뜻한 마음 전하세요

코로나19로 올해 추석은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이 줄어든 전망이다.
실제로 사람이인 직장인 1354명을 대상으로 귀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10명 중 6명이 포기를 선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한 데다 대규모 이동 시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 선택이다.
고향에 가지 못하는 마음을 대신 전하기 위해 올해 추석 선물은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한층 늘었다.
귀성을 포기했지만 선물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한가위 보름달만큼 넉넉한 유통업체의 선물세트를 주목해 보자.
부모님과 함께할 수 없지만 건강을 위한 선물도 좋고 조상님께 드릴 음식을 조금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선물도 있다.
추석을 맞아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용품부터 먹거리까지 다양한 선물로 비대면의 아쉬움을 달래 보자.



롯데백화점 | 남파 고택 선물세트

호남 200년 전통 종갓집 손맛 그대로

롯데백화점은 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남 나주 고옥 ‘남파고택’과 협업해 남도 반가 음식을 정갈하고 세련되게 맛볼 수 있는 ‘남파고택 선물세트’를 추석 선물로 내놔다.

남파고택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내림 음식’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전통 방식으로 빚어낸 간장·된장 세트인 ‘남파고택 200년 씨간장 리미티드 세트’는 12만원, 나주배 보쌈 김치, 반동치미, 흥갓, 파김치로 구성된 ‘남파고택 김치 4종 세트’는 18만5000원, 생강청과 유자청으로 구성된 ‘남파고택 수제청 2종 세트’는 5만4000원, 만능장과 국간장으로 구성된 ‘남파고택 간장 2종 세트’는 3만5000원이다.

남파고택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박경중 종손의



아내 강정숙 종부는 200년 동안 집안 대대로 이어온 씨간장과 내림 음식, 고택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온 공로로 2008년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남파고택의 종가음식을 ‘청와대 한국의 대표 내림음식전’에 전시하기도 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신세계백화점 | 한우 선물세트

한우 맛집 대표 메뉴 집에서 즐기세요

신세계백화점이 추석을 맞이해 한우 맛집과 손을 맞잡았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우 오마카세 전문 ‘모퉁이 우’, 수요미식회 한우 안심 맛집 압구정의 ‘우텐다’, 최상급 숙성한우 전문 청담의 ‘우가’, 프리미엄 한우 전문 압구정의 ‘설로인’과 함께 상품을 기획해 유명 맛집의 대표 음식을 집에서도 쉽게 즐기도록 준비했다.

또 180g-200g씩 나눠 소량 분리 포장으로 담아 보관과 한 끼 조리에 용이하도록 구성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모퉁이우 오마카세 세트 55만 원, 우텐다 시그니처 세트 55만



원, 설로인 프리미엄 세트 52만 원 등이 있다.

맛집 협업 상품 외에도 신세계백화점은 청정 자연 제주에 위치한 제동목장, 약 3만3058㎡에 달하는 방목장에서 건강하게 키우는 초원목장, 섬진강 발원지 수분재 옆 장수한우목장 등 천혜의 환경에서 무항생제 사료를 먹고 자란 건강한 한우만을 엄선해 매년 소개하고 있다.

또, 신세계가 선보이는 법성포 굴비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참조기를 깨끗한 칠산 바다에서 불어오는 하늬바람에 건조한 상품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현대백화점 | 한우 선물세트

최상급 명품 한우 6000 세트 마련

현대백화점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한우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준비된 물량만 6만개로, 지난해 추석(5만개)에 비해 20% 늘어난 수치다. 현대백화점은 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을 작년 추석과 비교해 1.5배 늘렸다.

‘화식한우’를 비롯해 1++ 육질 등급으로만 구성된 ‘현대 명품 한우’, 11만7,000㎡ 규모의 목장에서 방목해 키운 ‘자연방목 한우’ 등 프리미엄급 한우 선물세트를 대거 선보인다. 특히, 40만원 이상 프리미엄급 한우 선물세트 품목과 물량을 각각 20~30% 늘린 총 70개 품목, 6000세트를 마련했다.

‘현대 화식 한우 매 세트’(찜갈비 1.1kg·등심 로스 0.9kg·채끝 스테이크 0.9kg·불고기 0.9kg로 구성, 64만원), 전남 강진의 33만㎡ 규모의 목장에서 키운



‘자연방목 한우 선물세트’(등심 로스 0.9kg·양지국거리 0.9kg·불고기 0.9kg로 구성, 45만원), 강원도 홍천에서 키운 ‘무항생제 암소 한우 선물세트’(등심 로스 0.9kg·등심스테이크 0.9kg·국거리 0.9kg로 구성, 48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롯데마트 | 친환경 포장재 선물세트

플라스틱·스티로폼 없이 100% 종이 포장

롯데마트가 필(必)환경 시대에 맞춰 추석 선물세트 포장재를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매년 명절 때면 선물세트와 함께 배출되는 포장 폐기물들과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 등으로 환경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롯데마트는 분리수거 및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포장과 재사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포장한 선물세트를 운영한다.

과일 선물세트의 경우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고 100%종이 재질만 사용했으며, 기존 잉크보다는 비용이 비싸지만 유기 화



학물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쿵기름 인쇄기법을 적용했다. 특히, 과일이 흔들리기 않게 충분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이 소재의 ‘난좌’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안전한 배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버섯·인삼 선물세트도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거한 선물세트를 선보였으며, 정육 선물세트는 보냉백을 적용, 일회성이 아닌 다양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수산물과 축산물에 사용하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부자재를 사용해 내용물을 100% 물로만 채웠다.

남주현 기자 jooh@

이마트 | 유기농 표고·멸치세트

햇살 담은 표고... 나트륨 확 줄인 멸치

올 추석 이마트가 맛과 건강을 위해 기존의 가공 방법에서 벗어나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인 선물세트들을 선보인다.

이마트는 올해 추석 햇빛이 좋은 날만 골라 태양광으로 건조한 ‘햇살담은 유기농 태양광 표고 세트’(유기농표고 210g, 유기농표고채 160g)를 출시했다.

비타민D 함유량이 높고 식감이 더 쫄깃하다. 가격은 6만4800원이다. 사전예약 기간에 행사카드로 구매 시 30% 할인된 4만536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10개 구매 시 1개를 추가 증정한다.

이마트는 일반 멸치보다 생산기간이 3배인 3일이 걸리지만, 나트륨 함량을 대폭 낮춘 ‘짜지않아 건강한 멸치 세트’도 선보인다. 짜지않아 건강한 멸치세트(국물멸치 260g, 조림멸치 260g, 볶음조림 180g,



볶음멸치 180g)는 19일 명절 세트 본 판매 기간부터 이마트 단독으로 판매한다.

가격은 8만7000원에 행사카드로 구매 시 20% 할인된 6만96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5개 구매 시 1개를 추가 증정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홈플러스 | 30% 할인·온라인몰 당일배송

KF94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첫선

올 추석은 코로나19 여파로 고향이나 지인 방문을 자제하는 ‘비대면 명절’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쉬운 마음을 선물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10월 2일까지 점포와 온라인몰에서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실시, 지난해 추석(1200여종)보다 17% 확대한 1400여 종 세트를 준비했다.

홈플러스는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로 구성된 위생용품 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등 건강 관련 상품군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고향에 가지 못하는 고객들이 ‘손편지’로 대신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각 매장마다 편지지와 봉투를 비치하는 서비스도 선보였다.

또한 행사카드 결제 고객과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 최대 30%를 할인해주고,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 상품권도 제공하는 등 고객 혜택을



높인다. 3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무료배송되며, 온라인몰 주문 시에는 당일배송도 받을 수 있다. 대표 상품은 △한우와 개인 화로를 세트로 구성한 ‘Black Edition No.9 1++등급 한우구이 냉장세트’ 등이다.

남주현 기자 jooh@

LG생활건강 | 개인위생용품·화장품 선물세트

손소독 티슈·핸드워시 등 위생 필수품

LG생활건강이 추석を 맞아 비대면 트렌드를 반영한 개인위생용품 세트, 화장품 선물세트 등으로 구성된 추석 선물을 내놔다.

‘온가족 지킴이 항균 KIT세트 D호’는 언택트 시대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선물세트다. 가정에 비치하는 손 소독 티슈, 핸드워시, 세네티타이저 등으로 쉽고 깔끔하게 위생 습관을 쟁길 수 있다. 최근 외출 필수품으로 꼽히는 휴대용 세네티타이저와 숨 편한 마스크까지 포함돼 있어서 밖에서도 간편하게 개인위생 관리를 할 수 있다.

LG생활건강은 데일리 뷰티 제품도 준비했다.

‘벨면 39호’는 부드럽고 촉촉한 바다 피부를 신경 쓰는 이들을 위한 선물세트다. 벨면의 대표 제품 스파 바디워시는 부드러운 각질 제거가 가능하다. 자극적이지 않은 스크럽 제품 등으로 구성된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샤워만으로도 스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외출이 힘들어진 요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핑크솔트 41호’는 귀족소금으로 불리는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활용한 프리미엄 세트다. 맑고 깨끗한 두



피를 위한 샴푸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핑크솔트 치약으로 구성됐다.

화장품 선물세트도 있다.

LG생활건강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벨면’

는 피부 밸런스 케어를 통해 민감해진 피부 진정과 손상 케어를 돕는 ‘닥터벨면 어드밴스드 시카 기초 2종 세트’를 선보였다. 닥터벨면 어드밴스드 시카 토너와 에멀전으로 구성된 2종 세트는 병품 추출성분, 베타인, 판테놀을 함유한 처방으로 피부 밸런스 케어를 도와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케어해주는 시카 밸런스 솔루션을 제공한다.

김혜지 기자 heyji@

동원F&B | 추석 선물세트 200여종

영양소 풍부 동원참치, 명절선물 대명사

동원F&B는 추석을 맞아 면역력에 좋은 셀레늄과 영양소가 풍부한 ‘동원 추석 선물세트’ 200여 종을 선보였다. 스테디셀러인 ‘동원참치 선물세트’와 ‘리챔 선물세트’ 등이 대표 제품이다.

동원 선물세트는 지난해 기준 누적 판매량 2억 세트를 돌파한 대한민국 대표 식품선물세트다. 1984년 탄생한 동원 선물세트는 출시 첫 해인 1984년 추석에만 30만 세트 이상이 판매됐으며, 2006년 누적 판매량 1억 세트를 넘어선 이래 지난해 2억 세트를 돌파했다.

동원 참치는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DHA, EPA 등 오메가-3 지방산과 면역력을 높이는 셀레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 특히 최근 각종 재난 위기 상황에서 구호 식품의 대명사로 각인되며 참치통조림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치통조림은 고온에 멸균된 식품이어서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상온에서 유통기한이 7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간 보존 능력이 뛰어나다.

리챔은 2018년 1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고유



의 깊은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트륨 함량은 20% 이상 대폭 낮춰 건강성을 강화했다. 짜지 않으면서도 돼지고기 함량이 90% 이상으로 높아 햄 본연의 맛이 살아있으며 식감이 부드럽다.

동원F&B는 ‘건강요리유’를 내세우는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건강요리유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혼합 비율인 1:4로 혼합해 최상의 밸런스로 맞췄다.

김혜지 기자 heyji@

한국야쿠르트 | 추석명절 기획 35종

100% 유산균으로 발효 홍삼 농축액

한국야쿠르트가 추석을 맞아 28일까지 온라인몰 하이프레시에서 ‘추석명절기획전’을 열고 있다. 품목은 홍삼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신선간편식, 제수용품 등 총 35종이며 최대 29% 특별 할인 판매한다.

모든 제품은 원하는 날짜에 프레스시 매니저나 택배를 통해 받아볼 수 있고, 한 번 주문에 최대 5곳까지 배송지를 지정할 수 있어 여러 곳에 선물을 보내기 편리하다. 또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정성이 담긴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다.

한국야쿠르트 명절 인기제품으로는 ‘발취 발효홍삼K’와 ‘발효홍삼 천진녹보’, ‘발취 발효홍삼 스틱’ 등 발효홍삼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제품은 모두 100% 유산균으로 발효한 ‘HY발효홍삼 농축액’이 주원료로 들어 있다.

제품에 따라 녹용과 대보농축액, 벌꿀 등 다양한 부원료를 첨가해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 체형은 환부터 스틱까지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패키지가 더해져 명절선물로 인기가 높다.



밀키트를 활용한 명절 상차림 세트도 눈길을 끈다. 명절 상차림 세트는 ‘잇츠온 온가족명절세트’와 ‘잇츠온 추석 다이닝세트’ 2종이다. 이 세트는 각각 한식과 양식으로 구성된 기호에 따라 명절 전통 상차림부터 ‘홈스토랑’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올해는 전과 떡갈비, 한과 등 제수용품도 새롭게 판매한다. 명절 준비에 대한 고객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롭게 기획한 제품으로, ‘신궁전통한과 2종’과 ‘사옹원 부침명장 2종’도 선보인다. 박미선 기자 only@

CJ제일제당 | 추석 선물세트 260종

초저가~3만원대 다양한 실속 세트

CJ제일제당은 추석을 맞아 260종의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명절 스테디셀러인 ‘스팸 선물세트’를 비롯해 쓰임새가 좋고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된 ‘복합 선물세트’, 흑삼과 유산균 중심의 ‘건강 선물세트’ 등이 준비됐다. 내식(內食) 확대 추세에 맞춰 ‘비비고 왕고자’ 등 가정간편식(HMR) 제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도 내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스테디셀러 ‘스팸 선물세트’는 △스팸 8호 시리즈 △스팸 스위트1호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란 플라스틱 뚜껑을 없앤 ‘스팸’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2종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식용유 선물세트’와 ‘김 선물세트’는 1만 원 이하 초저가부터 3만 원대 고급 세트까지 라인업을 다양화했다. 지난해 추석 출시된 ‘참진한 참기름 세트’는 고소함을 강화한 ‘고소참기름 참기름’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김 선물세트’는 주력 제품인 ‘햇바삭김 5호’를 ‘비비고 토종김 5호’로 리뉴얼하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했다.



CJ제일제당은 집에서 식사나 간식 등 끼니를 해결하는 집밥 트렌드 확대에 맞춰 HMR 선물세트도 내놓는다. 기존 상온 제품 위주로 선물세트를 꾸린 것과 달리 이번 추석에는 냉동과 냉장 제품으로 구성했다. 식품전문몰 ‘CJ더마켓’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CJ 고메 간식차림’부터 ‘비비고 한상차림’까지 다양한 테마의 선물세트를 경험할 수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폭넓은 가격대의 다양하고 실속 있는 선물세트로 온 가족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heyji@

매일유업 | 셀렉스 선물세트

박세리 추천 단백질 ‘셀렉스 코어 프로틴’

매일유업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휴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과 정성을 가득 담은 추석 선물 ‘셀렉스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셀렉스는 성인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을 쉽게 섭취하도록 만든 제품이다.

매일유업의 생애주기별 영양 설계 전문 브랜드인 ‘매일 헬스뉴트리션(Maeil Health Nutrition)’은 1등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셀렉스 코어 프로틴’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성인영양설계 전문가 ‘셀렉스’의 대표 제품인 ‘셀렉스 코어 프로틴 플러스’는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코어 프로틴 플러스’는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아미노산 스코어’가 110점 이상으로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기준 대비 129%나 높



은 양질의 단백질이다

부모님의 선물세트로 ‘코어 프로틴 플러스’ 세트도 출시했다. 선물 세트는 분말 1캔과 스틱 14입 지관 1통, 전용 텀블러로 구성했다.

셀렉스 모델인 박세리 전 골프선수 “30대 이후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식사만으로는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코어 프로틴 플러스를 챙겨 먹고 있으며, 특히 부모님께 평소 꾸준히 챙겨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이들 영양간식용인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도 준비됐다.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군 상하면에 있는 상하공장에서 생산된다. 항생제와 농약, 화학비료 없이 만든 100% 유기농 사료와 방목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젖소에게서 얻은 원유로 만들어진다.

김혜지 기자 heyji@

한성기업 | 한끼에 제육만두·뚝불만두 2종

찬바람 불때 든든한 제육·뚝불 만두

한성기업이 대한민국 대표 인기 메뉴인 제육볶음과 뚝배기불고기를 만두에 담아 ‘한끼에 제육만두·뚝불만두’ 2종을 선보인다.

매년 성장을 거듭하는 국내 만두 시장에서 업계는 다각적인 시도를 통해 다양한 맛의 만두를 출시하며 국민의 입을 즐겁게 하고 있다.

한성기업은 수산물 회사의 장점을 살려 국내 최초로 해물 만두를 출시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여기서 나아가 제육볶음과 뚝배기 불고기 만두를 새롭게 출시했다.

신제품 만두 2종 모두 국내산 돼지고기를 30% 이상 사용했다. 아울러 최근 잦은 피 만두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아진 만큼 얇고 쫄깃한 만두 피를 사용해 내용물의 식감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성기업 측은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요리와 맛을 만두에 담아 만든 이번 신제품을 시작으로 한끼에 만두는 우리의 정서와 추억에 자리잡고 있는 다양한 메뉴를 만두에 담아 예정”이라며 “찬바람이 불



기 시작하는 요즘 제육 만두와 뚝불 만두로 입안 가득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우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성기업은 앞으로 가정간편식(HMR) 브랜드인 ‘한끼에’를 강화해 만두 및 다양한 간편한 한끼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박미선 기자 only@

롯데홈쇼핑 | 추석 마음 한상 특집전

프리미엄 신선·건강식품 집중 편성

롯데홈쇼핑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27일까지 프리미엄 식품 등을 집중 구성한 ‘추석 마음 한상’ 특집전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콕’, ‘자기소비용 상품 구매’, ‘온라인으로 추석 선물 전달’ 등 명절 트렌드 변화를 예상해 추석 특집방송을 예년보다 2주 연장하고, 관련 상품 편성도 확대했다. 고품질 상품에 대한 고객 니즈를 반영해 특집전 속 코너로 ‘프리미엄 추석 마음 한 상’을 별도로 운영한다.

올해 처음 진행하는 ‘프리미엄 추석 마음 한 상’에는 자체 식품 브랜드를 비롯해 고품질의 신선식품, 국내외 유명 건강식품을 집중 편성했다. 20일 오전 8시 50분에는 신선식품 자체 브랜드 ‘하루일과’의 명절 과일세트를 판매한다. 명절 시즌에 가장 선호되고, 필수로 꼽히는 청과들로만 구성했다. 프리미엄급 사과2.5kg, 배1.7kg, 멜론3.7kg를 한 세트 구성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당일 오후 3시에는 건강식품 자체 브랜드 ‘데일리 밸런스’의 ‘프렌치 콜라겐’을 판매한다. 홈쇼핑 판매 제품 중 최대 80% 높은 함량인 5000mg의 고순도, 고밀도, 저분자 콜라겐으



로, 12주 분량을 한 세트로 구성했다. 23일 오후 5시 40분에는 6월 론칭한 ‘하루일과 세척사과’를 판매한다. 국내 최대 사과 산지인 경북에서 생산돼 당도와 식감이 좋은 ‘미시마 품종’만을 구성했다. 21일에는 매년 명절 인기 상품으로 꼽히는 고급 정육세트인 ‘형성축협한우 정육세트(1++)’를 선보인다. 조리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등심, 국거리, 불고기, 사골곰탕 액기스 등을 세트로 구성해 합리적인 가격대에 판매한다. 22일 오전 11시 35분에는 커피전문점 ‘폴바셋’의 ‘바리스타 파우치’를 단독 론칭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SPC삼립 | 빛은 추석선물세트

송편·한과 등 1만~10만원대 알찬 구성

SPC삼립의 떡 프랜차이즈 ‘빛은’이 한가위를 맞아 추석선물세트 18종을 선보였다.

빛은 추석선물세트는 ‘송편세트’, ‘정통한과세트’ 등으로 1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됐다.

‘송편세트’는 모시, 참깨, 흑미 등을 넣어 만든 송편과 인기 제품인 찰떡, 만주 등으로 만들어졌다. ‘정통한과세트’는 식품명인 33호 박순에 명인과 기술제휴를 통해 만든 감정, 유과, 산자 등이 들어있다. 이 외에도 ‘양갱세트’, ‘전병세트’, ‘만주세트’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차례상을 간편하게 올릴 수 있도록 김규흔 정통한과 명인의 꿀과 조정만으로 만든 ‘수제꿀약과’, 소원을 기원하는 달을 닮은 ‘반달송편’, 국내산 쌀을 사용한 5가지 색깔 ‘오색송편’, 담백한 앙금을 넣은 ‘모시 잎송편’ 등도 1kg 단위로 별도 판매한다.

품목별로 △송편감사세트 1~4호 △송편문안세트 1~3호 △평온할 온 한과세트 △빼어날 수 한과세트



△한과세트 1~2호 △우리쌀로 만든 전병세트 △4색 미감 양갱세트 1~2호 △영양강정바 (30개입) △과일 강정바 (30개입) △참쌀신자 (5개입) △수제꿀약과 (8개입)이 있다. 28일까지 ‘선물세트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빛은 온라인몰에서 인기 선물세트 7종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빛은 마케팅 담당자는 “추석을 맞아해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선물세트를 출시했다”라며 “빛은 추석 선물세트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애경산업 | 즐거운 여행 선물세트

샴푸·비누 사이에 ‘여행용 세트’ 담겼네

애경산업에서 뒤늦은 휴가 여행을 즐기려는 ‘늦강 스족’을 위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즐거운 여행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즐거운 여행 선물세트는 여행 필수품인 여행용세트를 선물세트에 담은 신개념 추석 선물세트다. 샴푸, 린스, 바디워시, 치약, 비누 등 필수 생활용품 5종과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여행용세트 1종으로 구성돼 실용적이면서 차별화된 선물을 할 수 있다. 특히 다 사용한 휴대용 용기에 부족한 제품을 리필할 수 있어 경제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급감한 해외 여행의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유럽 지역의 자연유래 추출물을 담은 ‘유럽의 프리미엄 선물세트’도 함께 선보였다.

유럽의 프리미엄 선물세트는 샴푸, 트리트먼트, 치약 등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생활용품에 유럽의 대표 힐링 여행지인 알프스·핀란드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 유래추출물을 함유했다. 알프스의 에델바이스, 허브 추출물을 담은 ‘알피스트 샴푸·트리트먼트’와 북유럽 기업과 공동개발한 정정원료, 100% 나무유래 핀란



드산 자일리톨을 함유한 ‘스몰란드 치약’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구성됐다.

유럽의 프리미엄 선물세트는 알프스·핀란드 등 청정지역의 좋은 원료를 담은 선물세트로 성분에 관심이 많거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선물하기 적합하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올해는 연말까지 국내여행, 캠핑, 호캉스 등 휴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추석 때 여행에 필요한 선물을 하는 것도 의미 있다”며 “이번 추석선물세트가 연말까지 미뤄진 여행에 꼭 필요한 선물은 물론 해외여행의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KGC인삼공사 | 정관장 알파프로젝트

눈·간·장 등 7가지 맞춤형 건강 솔루션

직장과 사회생활을 동시에 해내는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으로 영양의 불균형이 발생되고 건강관리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요즘처럼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는 등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인의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다.

‘정관장 알파프로젝트’는 현대인의 건강이슈에 대한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특정 기능 맞춤형 건강식품 브랜드다.

건강 이슈별로 눈 건강, 간 건강, 장 건강 등 총 7가지 제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복합기능 설계로 스마트하게 건강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모든 제품에는 유해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영양성분이 함유돼 항산화에 도움을 주며, 제품명에서부터 효능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120년 역사의 정관장이 만든 제품답게 원료 선정부터 품질 관리까지 철저한 제조과정의 관리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 해 출시된 ‘알파프로젝트 수면건강’은



수면장애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큰 인기가. 속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강(쌀겨)주정추출물’과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락티움’ 성분을 함유해 바쁜 현대인의 편안한 잠과 스트레스 완화를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알파프로젝트 눈건강’은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으로 위협 받는 현대인의 눈건강을 책임진다. 루테인으로 불리는 마리골드꽃 추출물을 주원료로 해 미세조류인 헤마토코쿠스 추출물과 순도 높은 프리미엄급 오메가3를 결합, 눈 건강은 물론 건조한 눈 개선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오비맥주 | 스텔라 아르투아 기프트팩

전용잔으로 즐기는 벨기에 1위 맥주

벨기에 프리미엄 맥주 ‘스텔라 아르투아(Stella Artois)’가 추석을 맞아 ‘헤리티지 챌리스(Heritage Chalice) 기프트팩’을 출시한다.

이번 기프트팩은 650년 벨기에 양조 전통을 지닌 스텔라 아르투아의 오랜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 옛 로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패키지에 담긴 전용잔 ‘헤리티지 챌리스’에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 두 개의 각기 다른 디자인을 적용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멋스럽게 표현한 스텔라 아르투아 로고를 금색으로 각인했다.

‘헤리티지 챌리스 기프트팩’은 스텔라 아르투아 500ml 캔 4개와 한정판 ‘헤리티지 챌리스’ 2종 중 1개로 구성돼 원하는 디자인의 챌리스가 포함된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다. 18일부터 전국 이마트에서 구매 가능하다.

스텔라 아르투아 브랜드 담당자는 “추석을 맞아 최상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도록 ‘헤리티지 챌리스’가 담긴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며, “어떤 추석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스텔라 아르투아 맥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더욱 품격 있고 특별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전세계 95개국에서 판매되는 벨기에 1위 맥주이자 세계 4대 맥주로, 다른 유럽 라거들과 차별화되는 오랜 전통의 벨기에 필스너 스타일의 라거 맥주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최상의 품질을 위해 오직 체코산 노블 ‘사츠 홉’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분 좋은 씹살한 맛과 청량한 끝 맛으로 어떤 요리와도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하이트진로 | 일품진로 1924 선물세트

‘세계 증류주’ 대상 받은 명품 소주

하이트진로가 추석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일품진로 1924’ 선물세트를 한정 판매한다.

일품진로 1924 선물세트는 가성비,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트렌드에 따라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출시 때마다 완판을 기록하는 명절 대표선물로 인기가 높다. 증류식 소주의 풍미를 그대로 담은 일품진로 1924는 스트레이트로 마셔도 깔끔하고 얼음을 넣어먹는 방식인 ‘온더락’으로 마셔도 맛과 향이 유지되는 술이다.

선물세트는 일품진로 1924(375ml) 2병과 전용잔(스트레이트 잔 2개, 언더락스 잔 2개) 4개 구성이다. 프리미엄 소주의 격에 맞게 실크 원단과 고급스러운 질감의 박스로 포장해 선물 가치를 높였다. 또, 일품진로 1924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 궁합과 음용법을 담은 리플렛을 함께 제공한다.

일품진로 1924 선물세트는 9월 둘째주부터 전국 홈플러스 주요 매장에서 한정 판매한다. 하이트진로 마케팅팅 오성택 상무는 “일품진로는



세계 유명 주류품평회인 ‘몽드셀렉션’에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증류주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프리미엄 소주 브랜드로서 품질력과 가치를 다시 한 번 증명했다”며 “1924선물세트는 젊은 층은 물론 프리미엄 소주를 즐기는 중장년층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명절 선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품진로 1924는 프리미엄 소주시장을 선도하는 ‘일품진로’ 브랜드 제품 중 하나다. 2014년 창립 90년 기념주로 출시된 ‘진로1924’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랑과 요구에 따라 약 4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일품진로1924’로 재출시됐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유한양행 | 뽕곰씨

비타민 B·C 복합제, 무기력증 날린다

휴식과 에너지를 충전하기 좋은 명절이지만 이른 바 ‘명절 증후군’을 앓아 외려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이럴 때 무기력증이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은 이러한 피로해소에 도움을 준다. 특히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관계하는 비타민 B군(비타민 B1, B2, B6, B12, 엽산 등) 및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 B군은 주로 에너지 대사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도 돕는 역할을 하는 만큼 환절기 기력이 부족하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올 때 꾸준히 복용하면 좋다. 비타민B1은 근육통, 눈피로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B2는 구순염, 구내염 등 개선에 효과적이다. 비타민C는 지치기 쉬운 신체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유한양행 뽕곰씨에는 비타민B군과 비타민C,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이 함유돼 생활 속 활력을 지키는 데 효과적인 영양제다. 유한양행 측은



“다양한 비타민 제품 속에서도 뽕곰씨는 엄격한 제조과정과 품질관리로 생산되며, 식약처로부터 명확한 효능 효과를 허가 받은 의약품 비타민”이라며 “뽕곰씨 브랜드명 자체가 비타민B, C 복합제(비타민B군 +C: VitaminB complex&C)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기본에 충실한 영양제”라고 설명했다.

뽕곰씨는 1963년 뽕곰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의 비타민B군 결핍을 예방하는 유한양행의 대표적인 장수브랜드다. 박미선 기자 only@

한미약품 | 제텐-씨

종합비타민으로 면역력·활력 키우세요

한미약품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아연 22.5mg을 함유한 활력 종합 비타민 영양제 ‘제텐-씨’를 리뉴얼 출시했다.

제텐-씨는 육체피로와 체력저하를 느끼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각종 비타민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아연 22.5mg과 비타민C 750mg이 고함량으로 함유됐다. 특히 아연은 세포 증식과 면역 기능 조절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면역력 증강은 물론 항산화, 노화방지 및 전립선 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텐-씨는 하루 한 알 복용만으로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B1, B2, B6, E) 보충은 물론, 성인 기준 아연(7~10mg)과 비타민C(100mg) 일일 섭취 권장량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안정맞춤이다.

한미약품은 현대인들의 복용 패턴과 주기 등을 고려해 기존 120정으로 포장돼 있던 제텐-씨를 2개월분(60정)으로 리뉴얼하고 기존 제품보다 가격 경쟁



력을 높였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제텐-씨는 아연, 비타민(B1/C/E) 등 현대인들의 필수 영양성분을 균형감있게 함유한 종합 활력 영양제”라며 “감염병 유행 및 일교차 등으로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는 시기에 현대인들의 건강 지킴 영양제로 안정맞춤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제텐-씨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며, 의약품 영업마케팅 전문회사 온라인 팜을 통해 전국 약국에 유통된다. 박미선 기자 only@

JW중의제약 | 뉴먼트프리미엄B

만성피로 없애는 활성형 비타민B1 충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만성피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성피로에 빠진 직장인들은 관대·무력감은 물론, 수면장애와 두통, 소화불량까지 겪고 있다. 명절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이 같은 피로감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피로감 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비타민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만성피로는 비타민B1군이 체내에서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흔히 ‘티아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B1은 신경과 근육 활동에 필수적이며 에너지 대사와 핵산 합성에 관여한다. 핵산은 신진대사 촉진, 치매 예방, 간 기능 향상에 기여하므로 이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B1은 비타민B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활성형 티아민 B1 성분은 ‘푸르셀티아민’과 ‘벤토티아민’이다.

JW중의제약의 ‘뉴먼트프리미엄B’는 뇌장벽을 통과해 신경에 티아민을 전달해주는 푸르셀티아민과 신체에 빠른 흡수와 오랜 지속효과를 발휘하는 벤토



티아민 성분을 동시에 갖춘 제품이다.

벤토티아민은 다른 티아민 성분보다 생체이용률이 높고, 두뇌를 제외한 신체 전반적인 티아민 부족을 빠르게 채워준다. 따라서 육체적으로 피로하거나 운동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현대인에게 적합하다.

JW중의제약 관계자는 “한때는 비타민 시장에서 멀티비타민과 비타민C가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맞춤형 비타민 섭취를 추천하는 추세”라며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에게는 비타민B군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참다한홍삼 | 홍삼정 프리미엄스틱

홍삼 통째 갈아 영양분 100% 섭취

올해 추석에 건강식품의 판매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프리미엄 홍삼 브랜드 참다한홍삼의 ‘참다한 홍삼정 프리미엄스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품은 참다한의 스테디셀러인 홍삼정 농축액을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도록 스틱형 파우치에 담아 낸 것으로, 일반 홍삼스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술력과 독특한 제조방식으로 인해 중·장년층은 물론 20~30대 젊은 층에서도 사랑받고 있다.

참다한의 홍삼스틱은 홍삼을 물에 넣고 달이는 일반 제조법 대신, 홍삼을 통째로 갈아 넣는 온체식(macrobiotic) 제조법과 초미세분쇄기술을 사용해 높은 수준의 품질력을 자랑한다.

일반적으로 홍삼은 물에 넣고 달일 경우 물에 녹는 56.4%의 수용성 성분만 추출할 수 있다. 반면 홍삼을 통째로 갈아 넣는 참다한의 온체식 제조법은 버려지는 홍삼박 없이 홍삼의 모든 영양분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다. 홍삼의 수용성 성분은 물론이고 물 달일 때 버려졌던 홍삼박 속 불용성 영양분까지 제품에 담아냄으로써 영양 함량이 월등히 높다.



게다가 참다한은 홍삼을 통째로 갈 때 일반 분쇄가 아닌 초미세분쇄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흡수율도 최대로 높아진다. 홍삼 입자를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인 7~8μm 크기로 분쇄, 평소 소화 효소가 부족해 홍삼 성분을 잘 흡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입자 크기를 최소화시켰다.

한편, 참다한은 내달 12일까지 추석맞이 특별 할인전을 통해 30만 원 이상 구매 시 금액대별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3+1, 5+1 등의 추가 증정 이벤트도 준비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종근당 | 벤포벨

하루 한 알로 눈·간 건강에 근육통 해소

매년 명절이 끝나면 명절증후군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명절증후군이란 명절 동안 겪는 각종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일종의 후유증이다.

대표적인 명절증후군 증상으로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눈의 피로와 근육통, 무리한 가사노동으로 인한 어깨결림·허리통증 등 신경통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자주 풀어주고, 피로해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종근당의 ‘벤포벨’은 활성비타민인 벤토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 B군 9종과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코엔자임 Q10, 비타민 C, D, E, 아연 등을 복합적으로 함유해 하루 한 알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주성분인 벤토티아민은 육체 피로와 눈의 피로, 근육통 개선에 효과가 우수한 활성형 티아민 B1성분이다. 일반 티아민 B1 제제보다 생체이용률이 높고 복



용 시 약효가 빠르게 발현되며 오래 지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담양 성분인 UDCA를 30mg 함유하고 있어 명절 기간 가족끼리 가진 술자리와 피로 누적으로 저하된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좋다.

종근당 관계자는 “명절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육체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간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며 “만성피로와 면역력 및 체력 저하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의 평소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동아제약 | 베나치오

명절 과식 더부룩한 속, 시원하게 해결

추석 연휴에는 먹는 음식이나 생활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갈비나 튀김, 전 등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로 인해 명절에 가장 많이 찾는 상비약 중 하나가 소화제다.

동아제약 ‘베나치오’는 장출, 육계, 건강, 진피, 회향, 현호색, 감초 등 각종 생약 추출물이 함유된 소화제다. 회향은 담즙분비를 촉진해 기름진 음식, 육류 소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나치오는 탄산이 없어 위에 주는 자극이 적다. 또한, 국내 액상 소화제로는 최초로 2014년 국내 임상기관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4주간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환자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소화불량 증상이 개선됐으며, 식후 조기 포만감과 속 쓰림, 가슴 통증, 상 복부 이상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나치오는 2018년 약국에서 사랑받는 굿브랜드(GOOD BRAND) 대상에서 액제 소화제 부문 1위



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판매량 2000만 병을 돌파했는데, 이는 1.5초당 1병씩 팔린 수치이다.

동아제약은 2009년 많은 용량을 한 번에 먹기 힘든 여성과 노인층을 위해 베나치오액(20ml) 제품을 처음 출시한 데 이어 2012년 베나치오에프엑스(75ml) 제품을 추가 발매하며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2015년에는 액상 소화제와 함께 복용할 수 있는 ‘베나치오 세립’을 선보이며 소화제 시장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베나치오 세립에는 가스 제거에 효과적인 디메티론 성분이 들어있다. 유혜은 기자 euna@

코로나19·노사 갈등·규제 연장... 대형마트 ‘3중고’

거리두기에 손님 끊겨 실적부진
홈플러스, 폐점 늘며 노조 반발
전통시장 1km 내 대형마트 규제
2025년 11월까지 연장 가능성



서울 강서 홈플러스 본사

‘바람 앞 등불’ 같은 처지가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으로 소비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완전히 바뀌며 고객 이탈은 계속된다. 노사 대립으로 내부 혼란은 가중되고, 정부 규제는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2010년까지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대형마트가 급격한 사업 환경 변화로 불과 10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 일몰 기한 연장’이 개정안의 골자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는 전통시장 1km 이내 대형마트 개설을 규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으나 사실상 처리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11월 일몰 예정이던 이 규제는 2025년 11월까지 계속된다. 올해 대형마트의 줄폐점이 계속되는 만큼 당장 법안 통과가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통업의 사업환경 악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기대한 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유통

시장의 대세는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2010년대에 만든 법을 지금 재적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규제 프리존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쪽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전통시장이 살아났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 대형마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을 찾는 손님의 발길이 끊겨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매출 25%를 담당하는 할인점(대형마트) 사업부문은 상반기 36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쇼핑 할인점 부문은 2019년 262억 원, 2018년 287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마트도 연결기준 2분기 매출이 늘었으나 영업손실 47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영업손실 299억 원)보다 적자 규모가 커졌다. 계속된 적자에 롯데쇼핑은 전사적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 롯데마트는 6월부터 무급휴직을 실시중이다. 이 회사 직원들은 올해 말까지 기간을 정해 20일 혹은 30일 중 기간을 선택해 무급휴직할 수 있다. 롯데

마트가 무급휴직을 실시한 것은 1998년 매장을 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비효율 점포 정리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롯데마트는 서울 구로점과 빅마켓 도봉점, 경기 이천 마장휴게소 점 등 3개 점포 영업을 종료한다고 이달 초 밝혔다. 롯데쇼핑의 오프라인 비효율 점포 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롯데마트는 연내 16개 점포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조조정 작업은 예상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안산점과 대전 탄방점에 이어 대전 둔산점 폐점을 결정한 홈플러스는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홈플러스 노조는 매장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운영주체인 사모펀드 MBK가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줄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조는 매각이 결국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사측은 자산유동화를 통한 현금 확보 필요성을 주장한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4.7%, 38.9% 감소한 7조3002억 원, 1602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인 5322억 원에 달했다. 사측은 “매장 매각으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은 절대 없다”면서 “직원의 고용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조합이(매각에 반대하며) 오히려 회사와 직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뜰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는 노사 대립이 심화될수록 고용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회사 경쟁력도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임상 2·3상 승인

연내 긴급사용승인 가시권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연내 사용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내 개발 코로나 치료제 가운데 처음으로 임상 2·3상에 진입하면서 긴급사용승인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이 질병관리본부와 국제약품개발개발중인 코로나19 중화항체치료제 ‘CT-P59’에 대해 2·3상 임상시험을 동시에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료제 및 백신은 총 19건(치료제 17건, 백신 2건)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지난 7월과 8월에 승인받은 1상 임상시험의 후속 임상시험으로, 경증부터 중등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CT-P59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2/3상 임상시험이다. 식약처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1상 임상시험 결과, CT-P59 투여에 따른 안전성과 내약성(약물을 투

여했을 때 임상시험 대상자가 부작용이나 불편감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이 확인돼 다음 단계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임상시험은 2상과 3상을 동시에 승인한 것으로 2상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적절한 투여 용량과 치료효과를 탐색하고, 확인된 용량을 바탕으로 유효성과 안전성 확증을 위한 3상 임상시험을 720명을 대상으로 연속해서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승인한 ‘CT-P59’는 셀트리온에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유전자재조합 중화항체치료제다. 치료원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부위에 항체치료제가 대신 붙으면서 감염을 막게 된다. ‘CT-P59’는 미국, 루마니아 등 5개국에도 동시에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했다. 국외에서도 미국 일라이릴리사와 리제네론사가 코로나19 중화항체치료제를 개발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해외 못나가도 쇼핑은 한다 추석선물 ‘해외 직구’ 열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해외여행이 사실상 힘들어진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번 추석에 직접 방문보다 선물로 대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추석 선물 해외 직구 열풍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직구 열풍이 추석에 이어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까지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 직구 주요 카테고리의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늘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건강 및 의료용품 판매가 951% 수직상승했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생활용품과 주방가전도 각각 138%, 118% 증가했다. 직장인의 재택근무와 학생들의 온라인 수강으로 모바일·태블릿 장치도 103% 신장했다.

G마켓 해외직구 주요 카테고리 판매량 증감률		
(단위: %) ※ 9월 1~14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품목	신장률	
인기 상품군	브랜드 여성의류	1200%
	의료용품	160%
	주방용품	126%
	건강식품	160%
총계: 19%		※출처: 이베이코리아

각종 유명 브랜드물과 연계해 통관, 배송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몰테일에서도 7~8월 해외 직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38만 200여 건을 기록했다. 몰테일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긴 장마 여파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직구족 관심이 높다”면서 “직구 성수기인 하반기에는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빅세일 등 미국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할인행사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수요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선물을 저렴하게 직구로 장만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커머스 업계도 프로모션 등 각종 행사에 나서고 있다. 11번가는 추석선물로 해외직구 인기상품들을 미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물건너온 온갖 추석선물’을 진행한다. 미국 최대 건강보조식품 유통업체인 ‘아이허브’의 종합비타민, 영양제 등 1만5000여개 상품과 함께 해외직구 스테디셀러인 명품 패션잡화, 화장품, 가전 등 500여개 상품도 기획전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베이가 운영하는 G9는 ‘추석선물은 해외직구와 함께’ 섹션을 구성해 ‘빌레로 이엔보호 접시 세트’와 ‘마리아쥬 티백’, 스타벅스의 ‘월별 6개입’ 등을 선보인다. 쿠팡은 ‘로켓직구 추석마중’ 이벤트로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대표상품은 스완슨의 ‘코리안 진생’과 네이처스웨이의 ‘얼라이브 원스 데일리 멀티비타민’ 등이다. 남주현 기자 jooh@

G마켓 해외 관련 판매 17% ↑
건강·의료용품 951% 급증
몰테일, 직구 대신해 주는
‘다해줌’ 서비스 이용 늘어

7~8월에는 캐주얼의류(239%)와 캠핑·낚시(176%), 골프용품(110%) 등이 실외 취미용품이 인기를 끌다가 추석을 앞둔 이달 들어서는(14일까지) 여성의류(1200%)를 비롯해 건강식품(160%)과 주방용품(126%), 의료용품(160%) 등 명절 선물을 중심으로 19% 뛰었다. 이베이가 관계자는 “선선한 날씨가 되면서 의류 판매가 늘고, 각종 취미생활용품도 꾸준히 인기”라면서 “추석을 앞두고 건강식품, 주방용품 등의 구매도 많다”고 말했다. 미국 아마존 상품을 대신 구입해주는 ‘다해줌’ 서비스를 포함해 폴로, 다이슨 등



채험형 쇼룸 ‘링크랭크’ NC 신구로점에 문 열어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옴니채험형 쇼룸 ‘링크랭크(LINKRANK)’가 NC 신구로점에 1호점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링크랭크는 온라인 쇼핑물, 클라우드 편당, 포털 핫이슈 상품 중 가장 인기 있는 리빙 상품을 한데 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여주는 이랜드 자체 옴니채험형 쇼룸이다. 매장에서 직접 온라인 인기상품들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매장 내 키오스크를 통해 집으로 바로 배송시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사전제공 이랜드리테일

1인당 120봉지 후루룩

누적 판매량 60억개 기록

오뚜기의 대표 얼굴 ‘진라면’이 1988년 출시 이래 누적 판매량 60억 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120봉지씩 진라면을 끊어 먹은 셈이다. 오뚜기는 최근 ‘진라면’의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해 새롭게 선보였다. 매운맛은 빨간색, 순한맛은 파란색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두 가지 맛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패키지 전면에는 먹음직스러운 진라면의 씨줄 이미지를 크게 배치해 맛있는 진라면의 취식 욕구를 극대화했다. 오뚜기는 이번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을 기념해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온/오프

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달 들어 ‘백사부’ 백종원을 내세운 TV-CF가 온에어중이다. 1988년 3월 출시된 진라면은 국물이 ‘진’한 라면이라는 의미를 담아 깊고 진한 국물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에 소구점을 맞췄다. 진한 국물맛은 물론, 잘 퍼지지 않는 쫄깃하고 부드러운 면발에 순한 맛과 매운맛을 갖춰 소비자들의 선택지도 넓혔다. 변신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2005년 이후 수차례 리뉴얼을 통해 나트륨 함량을 줄이고 기존에 없던 쇠고기맛 플레이크, 당근, 대파, 버섯 등 건더기 양을 늘렸다. 라면 수프 소재를 다양화했으며, 밀단백을

오뚜기 대표 얼굴

추가해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까지 라면 자체의 맛과 품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재의 진라면으로 진화했다. 그 결과 오뚜기라면은 2012년 10월 국내 라면시장 2위 자리에 올라섰고, 작년 12월 시장 점유율 14.6%를 기록하면서 1위 신라면(15.5%)의 뒤를 바짝 쫓는 중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5월 국내 봉지라면의 소비자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봉지라면 중 가장 자주 구매한 라면으로 진라면(26.4%)을 첫손에 꼽았으며, 향후 구매의향 조사에서도 진라면(24%)이 신라면(20%)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혜지 기자 heyji@



엘로모바일, 중간지주사도 3년째 감사의견 거절

신한회계법인, 엘로오투오그룹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정글피플·팀그레이프·쿠차 등 계열사도 '비적정' 의견
데일리블록체인 20억 규모 유증 참여 등 사업회복 노력

쿠팡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유니콘 기업 엘로모바일이 높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지주사인 엘로모바일은 물론 중간 지주사도 3년째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있어서다.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딱지'를 3년째 달고 있는 셈이다. 엘로모바일은 상장사 케이랩스, 퓨처스트림네트웍스, 데일리블록체인 등 80여 개 스타트업을 거느리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 신한회계법인은 엘로오투오그룹에 대한 2019년 회계 연결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사 결과는 '의견 거절'이

었다.

신한회계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동사항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엘로오투오그룹은 '벤처 연합군'을 표방하며 스타트업을 문어발식으로 인수한 엘로모바일의 중간지주사다. 엘로오투오그룹은 이번을 포함해 감사의견 '거절'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주사인 엘로모바일도 3년 연속

엘로모바일	
설립	2012년 8월
대표	이상혁
계열사	케이랩스, 퓨처스트림네트웍스, 데일리블록체인 등 80여 곳
매출액	2507억 원
부채	5317억 원
영업손실	47억 원
당기순손실	286억 원

※ 실적은 2019년 감사보고서(감사의견 거절, 상회회계법인) 기준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2019년 감사 때는 감사인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2018년에는 약 1180억 원의 연간 순손실과 과도한 유동부채 문제를 지적받으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주기도 했다.

2012년 혜성처럼 등장한 엘로모바일은

벤처회사들과 지분을 교환해 덩치를 불리는 방식으로 한때 기업가치가 4조9000억 원에 달했던 비상장사다. 하지만 외형 확장에만 몰두한 채 내실 다지기에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았다. 엘로오투오그룹뿐 아니라 계열사 중 가장 최근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한정·부적정·의견거절) 의견을 받은 곳은 정글피플, 팀그레이프, 쿠차 등이 있다.

엘로모바일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산 4318억 원이다. 1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등 부채는 5317억 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532.32%에 육박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유지(200% 이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엘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엘로모바일은 사업 회복을 위해 동아줄이라도 잡자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사 서치파이(구 옐로커머스)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계열 상장사 데일리블록체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발행 신주는 392만 2999주로 약 19억6150만 원 규모다. 데일리블록체인은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유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엘로모바일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엘로모바일그룹이 상장사 중 성장성이 높은 데일리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내세우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현대차, 5년반 만에 최고가... 20만 원 넘을까

이틀째 올라 장중 52주 신고가
전기·수소차 사업 성장 기대감
신차 효과도...상승세 이어갈 듯
증권가, 목표주가 잇따라 상향

현대차가 5년 반만에 최고가를 찍었다. 전기·수소차 사업 성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신차 효과까지 가세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6년 동안, 20만 원을 넘지 못했던 주가가 재도약할지 이목이 쏠린다.

17일 현대차는 전일 대비 0.27% (500원) 오른 18만 4000원에 장을 마쳤다. 주가는 한때 19만 1500원까지 오르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2014년 이전만 해도 주가는 20만 원을 거뜬히 넘겼지만 2014년 9월 이후 14만~17만 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3월, 장중 6만 5000원까지 급락하면서 2010년 이래 바닥을 경험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주가를 회복하면서 저력을 보여줬다.

이같은 배경엔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카(친환경 자동차)'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면서다. 최근 증시에선 미국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와 수소 트럭업체 니콜라가 시장 잠재력을 인정받으면서 강세다. 이에 현대차도 수소·전기



차 사업 가치를 재평가받으면서 시장 눈높이도 덩달아 올라간 모습이다.

지난 15일, 현대차는 수소상용차 관련 미래 기술 설명회를 개최해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소 트랙터를 2022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수소차업체 니콜라의 기술력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현대차가 북미 수소상용차 시장을 선점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신차 출시 효과가 본격화되면 수익성도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15일, 현대자동차는 2015년 3세대 이후 5년 만에 바뀐 4세대 '디 올 뉴 투싼'을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17일 현대차는 '디 올 뉴 투싼'이 사전 계약 첫날 1만 842대를 기록해 현대

차 SUV 중에서는 처음으로 1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G80과 GV80의 북미 시장 출시가 임박한 만큼, 본격적인 판매 효과 반영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정용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는 불륜 신차의 흥행이 실적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조 1000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5일, 국제 신용평가사의 '부정적 관찰' 꼬리표를 떼면서 긍정적 전망에 힘을 보탤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하지만, 부정적 관찰 대상에선 제외했다.

아울러 국내 증권가도 20만 원을 웃도는 목표주가를 줄줄이 내놓으면서 시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13만 5000원에서 63%나 오른 22만 원을, 현대차증권은 16만 원에서 25만 원을 목표주가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NH투자증권(24만 원), 미래에셋대우(23만 원), 메리츠증권(22만 원) 등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유헤림 기자 wiseforest@

LG화학 '뿔난 개미'에 시총 5.7兆 증발 전문가 "지분가치 희석 없어...매수기회"

“배터리 분사, 경쟁력 확대”

LG화학의 분할방식을 놓고 주주가치 희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적분할은 현재 사업에 대한 주주들의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물적분할은 잘나가는 사업부가 비상장 기업으로 독립해 유상증자나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진행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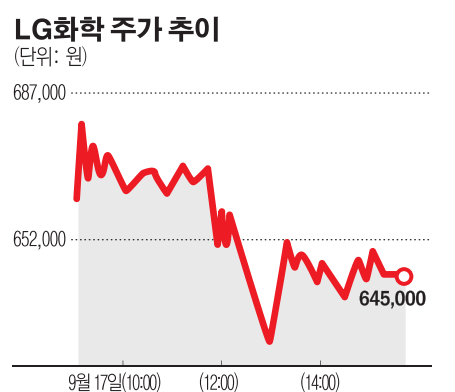
개미(개인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LG화학의 시가총액은 이틀 동안 5조 7179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17일 LG화학은 전일보다 6.11% 하락한 64만 5000원에 마감했다.

증권가는 주주들의 걱정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 만들어지는 'LG에너지솔루션(가칭)'은 LG화학의 100% 자회사로 연결 반영된다. 따라서 분사 후 IPO를 진행한다 해도 지배력 상실 가능성이 없기에 'LG에너지솔루션(가칭)'은 연결 반영된다. 즉, 물적분할 이후 기업가치 훼손 요인은 없다는 얘기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금은 배터리사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기 전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 석유화학이라는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재무적 시너지까지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가 훨씬 유리하다"면서 "물적분할이 생존과 기업가치 측면에서 주주가치 향상에 걸림돌이 될 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배터리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라는 최초의 투자 포인트와 석유화학 업사이클(Up-Cycle)을 믿는다면 분할방식을 막론하고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은 소형 전지와 ESS 등 기타 전지 부문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서 분사 후 배터리 사업은 CATL과 비교를 통해 LG화학 전체 시가총액(48조 5000억 원)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동차 OEM 등 글로벌 재무적투자자(FI) 유치 경쟁 시 배터리 사업 가치 상승이 가능하므로 LG화학 주가 하락 시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박연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 역시 "배터리 분사는 중장기 사업 경쟁력 확대 및 밸류에이션 회복에 단연 긍정적"이라며 "배터리 가치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LG화학 주가에도 긍정적인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미래에셋그룹 '2020 국가브랜드 대상'

금융수출 공적 인정... 14개국에 40개 법인·사무소 보유

미래에셋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가브랜드진흥원이 주최한 '2020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가브랜드대상'은 국가브랜드진흥원이 국가브랜드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했으며, 2015년부터 국가브랜드를 빛낸 개인과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세계지식포럼에서 함께 진행됐다.

국가브랜드진흥원은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선정 사유로 "코로나19의 여파와 미중 무역 갈등 등 불확실성으로 8년 만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 불모지로 좁히는 금융투자업계에서 금융 수출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빛낸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래에셋그룹은 글로벌 14개국에 약 40개의 법인과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해외법인이 지난해 기록한 세전 순이익은 업계 최초로 20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4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미래에셋그룹은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서 대한민국 금융 수출과 고객분들의 성공적 자산운용에 기여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국가브랜드대상 수상은 그동안의 활동, 특히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진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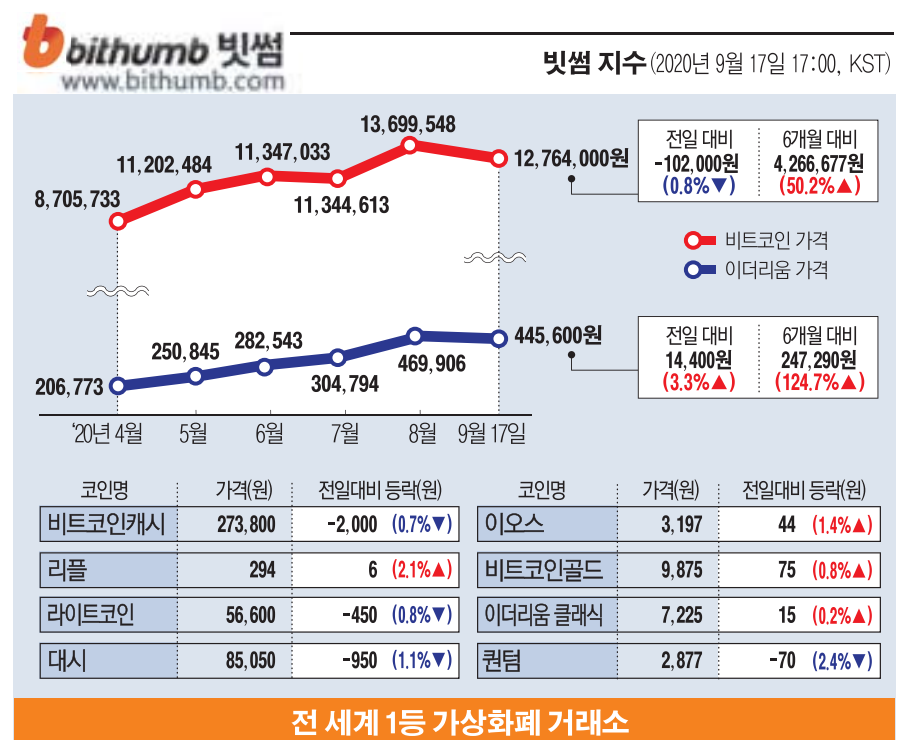


최현만(오른쪽)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2020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래에셋대우

평가를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셋은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투자는행으로 성장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의 가치 상승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새웃 입는 상계뉴타운…몸값 ‘고공행진’

1구역 14년 만에 사업시행 인가 눈앞
교통개발 호재로 신흥 주거단지 기대
1월 입주 ‘푸르지오’ 분양가 대비 6억↑
노원역 일대 아파트 재건축도 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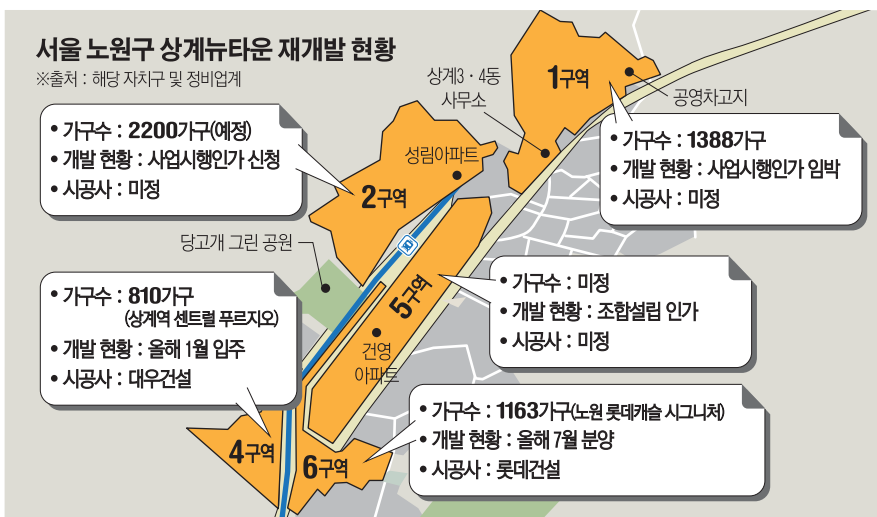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이 최근 재개발에 속도를 보이며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노원구를 관통할 교통사업 기대감과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새 집 신드롬을 등에 업고 상계뉴타운 새 아파트는 몸값을 높이고 있다. 상계뉴타운 밖 노후 단지에선 재건축 사업에 시동을 거는 곳들도 속속 나와 이 일대가 서울 북부권 부촌으로 급부상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상계뉴타운 1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정비업계는 보고 있다. 2006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14년 만이다.

상계동 H공인 관계자는 “상계 1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등이 공사 수주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계뉴타운은 서울지하철 4호선 상계역과 당고개역 인근 47만㎡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6개 구역으로 나뉜다. 이 중 3구역을 제외한 5개 구역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계 3구역은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개발 속도가 가장 빨랐던 곳은 4구역(‘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으로 2017년 상계뉴타운에서 첫 분양에 나선 뒤 올해 1월 입



주를 진행했다. 6구역은 4구역 분양 3년 만인 올해 7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라는 브랜드 간판을 달고 분양에 나섰다. 2구역은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5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마무리된 상태로 건축 설계 변경을 검토 중이다.

상계뉴타운이 위치한 노원구는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데다 교육 여건도 좋아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지난 10년(2010년 6월~2020년 6월)간 서울에선 총 80만 5605건의 아파트 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 노원구 아파트 거래가 8만 1189건(10%)으로 가장 많았다.

올 들어 노원구 아파트값의 누적 상승률은 1.59%(한국감정원 기준)다. 구로구(2.30%)와 강북구(1.69%)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특히 상계뉴타운 첫 새 아파트인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는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새 아파트 선호현상에 힘입어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전용면적 59㎡형의 최근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8억 2000만 원을

넘는다. 전용 84㎡형은 12억 원을 호가한다. 올해 봄 이 아파트 입주권이 9억 3000만~9억 4000만 원에 팔린 것을 감안하면 3~4개월 새 2억 6000만 원 넘게 뛰었다. 2017년 분양 당시 가격(5억 6700만 원)과 비교하면 6억 원 가량 오른 셈이다.

인근 O공인 관계자는 “중저가 아파트가 많아 다른 지역 대비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지난해 말 대비 가격이 1억 원 안팎으로 오른 곳이 수도룩하다. 새 집

은 상승폭이 더 크다”라고 말했다. 상계동의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올해 초 3억 원하는 상계2구역 빌라 몸값이 지금은 3억 9000만 원 정도로 뛰었다”고 전했다.

청약시장도 폭발적이다. 상계6구역 재개발 단지인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난 7월 ‘로또’ 분양 열풍을 타고 평균 경쟁률 58.9대 1, 최고 597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을 마무리했다.

여기다 지하철 7호선 노원역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것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준공 32년차인 상계주공6단지가 최근 D등급으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인근 상계주공2단지와 상계주공7단지도 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서를 끌고 재건축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상계뉴타운에는 재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상계역과 왕십리역을 잇는 동북선 경전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창동차량기지 개발 등 호재도 많아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일대 집값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임대주택사업자 의무 위반 과태료
서울 작년 75억…강남구 1위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간을 어기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는 약 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분의 1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부과됐다. 일부 사업자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무더기로 집을 임대 의무기간에 등록 말소해 4억 원 넘는 과태료를 냈다.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가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781건, 74억 4944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 3240만 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34%에 달했다. 강남구는 12억 6120만 원으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았다. 정용욱 기자 dragon@

〈집주인 vs 세입자〉

전셋값 뛰고 분쟁 격화 ‘규제의 역설’

‘계약갱신청구권’ 부작용 속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올 5.9% ‘썰렁’
5년 만에 최고…임대차 상담도 급증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보름여가 지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충돌 사례가 잦아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시장에서 이 제도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은 뛰는 규제 후 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114가 17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8월까지 5.90% 급등했다. 2015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부터 16개월째 연속해서 오르고 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매물 품귀가 심화하면서 전세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9~11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29% 오른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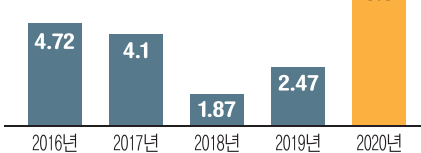
윤지혜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 사전청약 대기수요까지 가세했다”며 “올해 가을은 지난해보다 높은 전세가 격 상승이 예상되고, 이런 흐름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치솟는 와중에 매매값이 안정세나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경기 안산과 용인, 인천 중구 등 수도권 외곽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값을 넘어섰거나 가

서울 연간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

(단위 : %, 올해는 8월말 기준)

※출처: 부동산114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건수

	전체	임대차 관련
2019년 8월	2218건	1539건
2020년 8월	5620건	5090건

격 차가 거의 없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 액수는 8월 말 현재 3015억 원(1516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 총액인 2836억 원(1364가구)을 넘어선 규모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격화하고 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 새 매수자가 거주하려고 해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집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기존 집주인과 새 매수자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쥐어주며 달래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8월 한 달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는 562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지난해 동기(2218건) 대비 2.5배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임대차 관련 상담은 1539건에서 5090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에 2만 40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건강한 일상이 소중해진 요즘,
홍삼의 힘을 선물하세요
바이탈뷰티 명작수

그 어느 때보다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은 홍삼 앰플 명작수-오늘부터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매일을 지켜주세요.
*인삼 열매는 부원료입니다

바이탈뷰티 명작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정경심, 사모펀드 재판 ‘전면적 진술 거부’ 행사

“반복적 질문은 진술 강요”

건강 이상 호소 병원 이송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피고인 신문 절차 진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전면적 진술 거부권을 갖고 있다”며 “반복적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간접적 형태의 진술 강요가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는 16일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남독한 의견서에는 ‘피고인 신문 절차 신청을 하지 않는다’, ‘수사 과정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했다’, ‘전면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고 불리한 진술 외에 유리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의 기회를 얻기 때문에 무조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

고 맞섰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만 알 수 있는 사실이 많아 설명할 부분이 많고, 아직 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없어 검찰로서는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관계와 쟁점과 관련해 솔직하고 진실되게 진술할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그 래왔다”며 “다만 피고인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아니라 전면적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인과 다른 위치에 있어 검사와 재판부 질문에 대해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갖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할 의무가 없어 신문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 거짓이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교수는 재판 도중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다 쓰러졌다. 정 교수는 재판부의 퇴장 조치 후 법정을 나서려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으나 의식을 잃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곧바로 법정에서 방청객들을 퇴장시켰다. 정 교수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들것에 실려 법원을 떠났다. 김중용 기자 deep@

서울시 ‘개천절 집회’ 강력 대응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인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신고된 집회 건수는 128건으로 신고 인원은 약 41만 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집회금지 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일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17

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주최 측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며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와 현장동행 등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확대 위험성 여부를 판단해 집회금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색고운 추석 승편 추석을 2주 앞둔 17일 경기 화성시 정남농협 화성웰빙먹거리스타업단 관계자들이 승편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딜라이브, 11년 만에 망 구축공사 배상받는다

대법 “시공사, 한전 승인 못 받아… 의무불이행으로 손해 발생”

딜라이브가 자가망 구축과정에서 한국 전력공사 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을 두고 통신공사 업체와 11년간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사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딜라이브가 손해배상 청구로 반소한 사건 상고심에서 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07년 1월 딜라이브(당시 씨엔엠)가 케이블TV,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 자가망 구축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사업은 한전 전신주에 통신 케이블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개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전선 등을 같은 지지물(전신주)에 가설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한전으로부터 공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A사는 시공사로 선정된 직후 딜라이브 이름으로 한전에 공사 사용 승인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공사는 그해 7월 완료됐지만 한전의 승인은 끝내 불발됐다.

A사는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는 모두 완료됐으며 미지급 공사대금 10억여 원을 달라고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딜라이브는 A사가 한전으로부터 승인받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케이블을 옮겨 설치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1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계약상 A사가 한전으로부터 공사 사용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었는지, 승인받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A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딜라이브에 13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A사가 의무를 다하지는 못했지만 승인받지 못한 부분 이외의 공사는 모두 완료됐으며 딜라이브가 미지급 공사대

금 중 4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2심은 A사가 4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더불어 한전의 승인은 공사 완료와 다른 부수적 채무라며 딜라이브가 미지급 공사대금 10억여 원을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입찰하면서 승인받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A사가 부담하는 의무는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필요불가결한 채무”라며 “딜라이브가 한전에 지급한 위약금과 전산망 임차 관련 비용들은 A사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고 책임을 70%만 제한해 A사가 10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딜라이브는 미지급 공사대금 4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한끼애®

집밥프로젝트

대한민국 인기 메뉴를
만두에 담았다!



한성
기업
Since 1963

“한끼애”는 한성기업(주)의 등록상표입니다. ©2013. HANSUNG Enterprise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의 우주 속으로



서울 부암동 '환기미술관'

2018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국내 미술평론가 37인에게 한국근현대미술의 대표 작가를 물었다. 1위는 한국추상미술의 개척자인 김환기(1913~1974)가 차지했다. 2위는 백남준, 3위는 박수근이었다. 대중의 갈채를 받는 화가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미친 듯한 집중력과 놀라운 다산성을 특징으로 지닌다. 김환기, 그는 창작 에너지를 이미 과도하게 소비하고도 허기로 괴로워 여분의 에너지까지도 소모하기 위해 광분한(?) 화가이지 않았을까.

김환기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수필가이자 미술평론가인 김용준(1904~1967)은 이렇게 썼다. “그는 예술에 사는 사람이다. 예술을 먹고 예술을 입고 예술 속으로 뚝고 들어가는 사람이다.” 김환기의 모든 일상과 모든 생각, 모든 시공간이 예술이었다는 얘기?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환기미술관은, 우리가 눈먼 지지를 보내도 무방할 게 틀림없는 김환기의 작품을 술하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의 유화, 드로잉, 구아슈, 오브제 등 2000여 점의 작품과 유품, 저서, 편지, 다큐멘터리 사진 등속을 소장한 미술관이니까. 명망에 걸맞은 걸작들, 그리고 유품들에 서린 일상의 흔적과 사유를 만날 수 있어 즐겁고 값진 공간이다.

북악산과 인왕산이 겹으로 품을 벌려 사람들을 보듬는 곳. 봄이면 산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 온갖 여쁜 꽃순이들이 맨발로 우르르 달려올 듯 반색하는 산동네. 자연 풍치로 낙원을 꾸려 서울에서 드문 이색 지대인 부암동이다. 환기미술관이 이 부암동에 있어 찾아가는 발길이 가깝하다. 질푸른 산자락 갈피에 그림엽서처럼 곱상하게 꽃힌 작은 집들과, 저 너머가 문득 궁금해지는 언덕길, 그리고 골목골목에 감도는 의외의 적막감이랄까. 이렇게 술술 걷기에 좋은 길의 안동, 주택가 고즈넉한 곳에 환기미술관이 있다.

대문을 들어서자 흙 마당이다. 소나기라도 쏟아지면 흙내가 흑 끼치려나. 서울에서 토속적인 시골 마당을 보게 되다니. 요란한 이방에서 구수한 고향 원주민을 만난 듯 반갑다.

부정형(不定形)의 경사진 터에 들어앉은 건물은 석 동이다. 본관과 별관, 그리고 달관이 저마다 상이한 형상을 가지고 공간을

분할한다. 넓지 않은 터전에 건물 셋이 있으니 여백이 부족해 웅색할 만도 하지만 층계로 유도되는 동선의 다변성으로 활달하다. 나무 정원의 푸름이 주는 생동감으로 헌칠하다. 건물들의 외양은 언뜻 보면 상자처럼 단순하다.

그러나 일단 기능성을 극대화한 건실한 품모이며 섬세한 미학이 입혀져 당당하다. 본관의 구성과 디자인은 특히나 웅골차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풍색이다.

환기미술관 설립을 주도한 건 김환기의

아내 故 김향안 여사가 설립 주도 자연에 그림처럼 순응한 품새 전시공간의 변화감 높이 평가 1994년 ‘김수근 건축상’ 받기도

아내 고 김향안 여사. 돌아보면 모든 게 사랑이자 백년동맹이었나? “한 사람이 사라졌을 뿐인데 온 우주가 텅 빈 것 같다.” 김향안은 사별의 허탈한 심경을 그렇게 토로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생애 중에 해야 할 오직 유일한 일은 남편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에 있다는 양 집념과 독심을 다해 미술관을 건립, 1992년에 개관했다. 미국에서 살았던 김향안은 소장하고 있던 남편의 모든 작품을 유럽의 이름난 미술관에 줄 계획이었다. 그러다 생각을 바꿔 한국에다 아예 미술관을 지어 기증하기로 하고 ‘환기재단’을 만들어 일을 추진했다. 이렇다 할 독지가 하나 없는 상황에서 틈틈이 김환기의 작품을 팔아 자금을 조달했다.

“사람을 울릴 수 있는 미술이어야 한다”

설계자는 재미 건축가 우규승. 콜롬비아 대학 유학생 시절부터 김환기 내외를 부모처럼 섬겼던 인물로 김환기의 일기에도 나온다. 과연 어떤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길 것인가. 김향안은 숙고했으리라. 김환기의 분신에 해당할 미술관이니 무엇보다 김환기의 삶과 예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찾았으리라. 기술의 집적이면서 예술까지 발현되는 건축물, 김환기의 작품과 혈연처럼 상통하는 미술관. 김향안이 지향하고 우규승이 추



구한 건축은 아마도 그런 것이었을 테다. 이 미술관은 1994년 ‘김수근 건축상’을 받았다. 주변 자연에 순응하고 사람을 압도하지 않는 건축의 품새, 내부 전시공간의 변화감과 탁월한 전시기능 등을 높이 평가받았던 거다.

김환기는 어떤 화가였다. 밥 먹고 잠을 자는 시간 외엔 온통 그림과 맞붙어 산 인물이었다고 한다. 미술 작업으로 삶을 실감하는 감관의 소유자? 주로 작업실에 붙박이 장롱처럼 붙어살았으니 창작의 충열감이 그의 붓을 노래하게 하고 춤추게 했으리라. 열정, 또는 탐욕스러운 지경의 창작 욕구 자체가 그의 재능이었을지도. 인간사의 모든 경향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예술가는 남다른 노력으로 고귀한 종(種)의 반열에 오르며, 고귀한 영혼은 매너리즘에 사로잡히지 않아 진취적이다. 지금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해안과 용기. 이것이 김환기라는 예술이 보유했던 특별한 자산이지 않을까.

르네상스적 지성인이었던 그는 면밀한 성찰과 민감한 촉으로 자신을 읽고 미술을 해부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지도를 읽어 가야 할 좌표를 스스로 찍었으니 그를 일러 ‘한국

을 통해 세상을 더 깊고 넓게 보고자 했나보다. 순수추상으로의 질주 경위를 알게 하는 그의 진술이 여기에 있다.

“미술은 철학도 미학도 아니다. 하늘, 바다, 산, 바위처럼 있는 거다. 꽃의 개념이 생기기 전, 꽃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을 생각해 보라. 막연한 추상일 뿐이다.”

환기미술관은 해마다 두 차례 김환기 기획전을 펼친다. 올 하반기 타이틀은 ‘수화시학’(樹話詩學)전이다. ‘수화’는 김환기의 호. 영리한 애호가들이여, 시에도 조예가 깊어 시작 상상력으로도 그림을 그렸을 김환기의 기재(奇才)와 문재(文才)를 그림에서 명민하게 찾아보시라! 미술관의 기획 취지는 그런 것일 게다. 사실 김환기는 상당한 분량의 시와 산문을 남겼다. 시로써 먼지와 소음에 미만한 세상을 관조했고, 시어의 유희와 조탁으로 예술정신을 표출했다. 그는 “미술에는 노래가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사람을 울릴 수 있다”는 거였다. 김환기의 글쓰기와 시학은, 자신의 그림에 최무성(徹底性) 감흥 요소를 어떤 방법으로 주입할 것인가에 관한 모색의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

결별안이라고, 결만 보고도 속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환기미술관 본관의 속은 결보다 웅숭깊다. 군더더기 없이 명증한 구조로 아름답다. 모든 구성이 김환기를 향한 일종의 현화인가? 설계자는 위대한 화가의 작품에다 건축의 공합을 맞추기 위해 진땀까지 쏟았겠다. 이번 기획전엔 대형 전면점화 10여 점을 비롯해 모두 200여 점을 내걸었다. 김환기 작품의 심원한 숲에선 새가 날고 달이 뜬다. 자연의 숨결이 스며들리고, 안도할 만한 적막감이 선(禪)처럼 광활한 뉘앙스를 풍긴다. 불멸의 대표작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시리즈’를 보라. 강력한 자장을 발산한다. 화가는 점점이 찍은 무수한 점으로 삶과 사랑을, 자연과 순리를, 해탈과 우주를 이야기했나? 어떻게 모든 무방할 테다. 점 하나하나를 세로 입자로, 그리움을 기록한 엽서로, 도통한 나한(羅漢)의 눈알로, 혹은 우리가 끝내 돌아갈 저 밤하늘의 별로, 그저 이렇게 저렇게 보더라도 답일 거다. 분명한 건, 어떤 거대한 질서가 응축된 하나의 소우주로 다가오는 그림이라는 사실이다.

글/박원식 객원기자 tititoto@hanmail.net
사진/주민욱 프리랜서 minwook19@hanmail.net

무수한 점 찍어 그린 전면점화로 세계적 작가 대열에 오른 金화백 “미술에는 노래가 담겨야 해... 그래야 사람을 울릴 수 있다” 詩로 보는 ‘수화시학’ 기획전 열려

현대추상미술의 선구자’라 한다. 독자적인 추상미술의 완숙한 경지에 도달하기 이전에 그가 섭렵한 구상과 반추상의 여정 역시 탁발한 것이었다. 초기의 구상 작품은 다분히 서정적이고 감각적이어서 빼어났다. 이후 달항아리, 학, 매화 등 한국의 민족 정조를 표상하는 소재들을 통해 한결 현대적인 작품을 시도했고, 마침내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 그린, 이른바 전면점화(全面點畫)로 순수추상의 극점에 도착하면서 세계적인 작가의 대열에 들어섰다. 조형적 변신을 관습으로, 신세계적 회화 언어의 개발을 본분으로 삼아 거둔 결과물이었다. 구상에서 추상으로, 객관에서 주관으로, 현상에서 본질로, 해석에서 관조로, 김환기는 그런 관점 이동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소상공인의 새 희망이 열립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han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잡고
그분들의 온라인 마켓 진출을 돕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
'가치샵시다'에서
'희망으로 같이가게'
특별 판매전을 찾아주세요

가치샵시다

**Hope.
Together.**

 신한금융그룹  중소벤처기업부



※ 상기 사이트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치샵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신한금융그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힘을 모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시범 선정해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온라인 창업 교육부터 홍보까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가이드 영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희망으로 같이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가치샵시다'**와 함께합니다 (v.dongbanmall.com)
※ 해당 캠페인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hopetogethermarket@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SI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전문가 아닌 일반인이 소비하는 부동산정보 지향”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유거상 대표

갭투자 증가 지역·많이 산 아파트...직관적인 정보 제공 주력
거래 당일 정보 입력 신속성 자신, 공인중개사에 유료서비스

“대중들이 믿고 많이 활용하는 정보가 공신력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로 ‘아실’이란 곳이 있다. 아실은 ‘아파트 실거래가’의 줄임말이다. 다소 노골적이나 대중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유거상<사진> 아실 대표는 삼성생명에서 처음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개인 고객을 담당하는 WM사업부에서 VIP 전담 부동산자문역으로 10년간 일하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2017년 아실 대표를 맡았다. 자산가들에게 실질적인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자문을 해왔던 만큼 유 대표는 아실을 통해 기존 부동산 정보업체들보다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유 대표는 “부동산 대출 기준으로까지 활용되는 KB국민은행 등 민간 정보업체

의 자료를 막상 일반 대중이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아실은 전문가들에게 소비되는 정보가 아닌 일반 대중들이 소비하는 정보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아실 콘텐츠에는 갭투자 증가 지역, 많이 산 아파트, 최고가 아파트 등 대중들이 쓰는 직접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존 부동산 정보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아실만의 개성을 담은 콘텐츠”라고 설명했다.

아실의 강점은 정보 전달 속도에도 있다.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위해 흔히 이용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의 경우 실제 거래가 반영되기까지는 약 한 달 정도가 걸린다. 실거래가와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 간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실은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마친 뒤 바로 네이버에 거래 완료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계약 당일에도 아



실에 반영이 된다. 속도뿐 아니라 정확성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유 대표는 “아실은 중개사들이 올리는 네이버 매물(매매·전세·월세) 원데이터를 집계, 재가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공 정보가 정확한지의 여부를 중개업소 등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최근 중개사법 개정 이후 허위 매물이 줄면서 정보의 정확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기업인 만큼 아실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 현재 최우선 과제다. 유 대표는 “아실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유료 회원은 2000명 수준이나 사무실을 개업한 공인중개사만 10만 명이 넘어 향후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아실은 우리금융지주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인 ‘디노랩’ 참가사로 은행 등과 연계한 비대면 대출 중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토스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뱅크에 비해 몸집이 무거운 은행은 비대면 플랫폼 구축에 대한 대비가 늦을 수밖에 없어 이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실은 국내 1군 건설사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분석사업에도 나서고 있다. 유 대표는 “건설사들이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단지 시세나, 지역 소득 수준 등과 같은 데이터 자료가 필요할 때가 많다”며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해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정비사업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성윤모 장관, 쿠팡 물류센터 찾아
“방역 철저·배송기사 안전” 당부



성윤모<사진 맨 왼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 양산시 쿠팡 유통물류센터를 찾아 철저한 방역과 배송 기사의 안전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쿠팡은 유통물류센터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출입 관리, 직원 간 거거리 접근 경보, 공용물품 사용자 추적, 비대면 배송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이에 철저한 시설 및 개인 방역 관리를 강조하고 “배송 기사 등 근로자의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통물류센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필품을 비대면으로 조달하는 필수산업으로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삼성, QLED TV로 보는 8K 영화 ‘언택트’ 김지운 감독이 갤럭시폰으로 찍는다

김고은·김주현 출연...내달 공개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QLED TV로 감상하는 8K 영화를 제작한다. 삼성전자는 ‘언택트’ 제작발표회 현장을 17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8K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직접 8K 생태계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8K로 찍고 8K로 보는’ 영화 제작 프로젝트에 나섰다. 영화 ‘언택트’는 비대면이 일상인 사회상을 반영한 로맨스 영화다. 한국 영화계의 거장 김지운 감독이 직접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주연으로는 배우 김고은과 김주현이 캐스팅돼 소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경쾌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영화는 갤럭시 초고화질 카메라와

QLED TV 초대형 화면을 통해 8K 기술을 완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부 특수 촬영을 제외한 대부분 장면을 갤럭시 S20과 갤럭시 노트 20을 활용해 16:9 비율의 8K 영상으로 촬영한다. 또 8K 화질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초대형 QLED 8K로 감독이 의도한 영상미와 배우의 세밀한 연기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제작발표회는 박경림이 진행을 맡았고, 김지운 감독과 배우 김고은, 김주현이 참석해 영화에 대한 소개와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하는 8K 영화에 참여하는 포부와 기대감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10월에 서울 시내 두 곳(연남동, 성수동)에 ‘8K 시네마’를 마련해 완성된 영화를 공개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삼성전자의 8K 영화 ‘언택트’에 출연하는 배우 김주현(왼쪽부터)과 김고은, 각본·연출을 맡은 김지운 감독, 진행자 박경림 씨가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열고 있다.

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극장을 콘셉트로 소규모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8K 시네마’는 삼성전자 SNS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마케팅 담당 윤태식 상무는 “영화 ‘언택트’는 삼성전자가 주도

하고 있는 8K 생태계를 토대로 거장 김지운 감독과 함께 완성한 8K 영화”라며 “앞으로도 8K로 일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영화처럼 감상하는 놀라운 경험을 누구나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한국MSD 새 대표 케빈 피터스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MSD의 한국지사 한국MSD는 대표이사 케빈 피터스(51) 신임 사장을 11월 1일부터 임명한다고 17일 밝혔다.



케빈 피터스 신임 사장은 29년 이상 제약업계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이다. 1996년 영국MSD에 입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국 및 유럽 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태국MSD 대표이사로서 성공적으로 조직을 이끌며, 사업 성장을 견인했다.

태국MSD 대표이사 이전에는 중국MSD 부사장 및 최고 마케팅 책임자(CMO)를 지냈다. 면역학 사업부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 유럽 지역 다이버시파이드 브랜드 마케팅 리더, 영국MSD 사업부 부사장 등 다양한 직책을 두루 거쳤다.

유혜은 기자 euna@

사내 친환경 캠페인으로 비용절감
KB국민은행, 1억 모아 사회 기부

KB국민은행은 ‘KB 그린 웨이브(Green Wave)’ 친환경 캠페인 실시로 절감된 비용 1억 원을 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6월부터 고객과 함께하는 KB Green Wave 캠페인으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 1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국민은행 임직원들은 전자보고 및 화상회의 방식을 택함으로써 복사용지 사용량을 전년 대비 25% 줄였다. 아울러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조명을 꺼두는 등 전기 사용을 줄여 기부금을 마련했다.

기부금 1억 원은 태풍이 지나간 바다의 쓰레기를 치우고,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따뜻한 외투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해피빈 내 KB Green Wave 페이지에서 친환경 생활 약속, 댓글 참여 등을 통해 누구나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KB Green Wave 캠페인을 계속 이어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조영일(왼쪽) 에스오일 수석부사장이 강인학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장에게 장애 청소년 학습용 맞춤 보조기구를 전달하고 있다.

에스오일, 저소득가정 장애청소년 학습용 보조기 전달

에스오일(S-OIL)은 1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저소득가정 장애청소년 학습용 맞춤 보조기구 전달식’을 열고 장애 청소년 43명에게 1억 원 상당의 학습보조기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동 높낮이 조절책상, 자세보조장치 등 학생의 장애 유형을 고려해 맞춤형 기구를 제작했다. 전국의 보조공학서비스 기관들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을 추천

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영일 에스오일 수석부사장은 “에스오일의 작은 도움으로 많은 학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면서 “에스오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더욱 많은 장애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OK금융,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마스크 20만장 기부

OK금융그룹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과 함께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바이오OK마스크 20만 장을 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OK금융그룹은 전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택시복지재단에서 바이오OK마스크 기부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부한 마스크는 총 20만여 장으로, 전국의 법인택시기사 9만1000여 명에게 각 2장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세척 사용 시, 약 2개월간 사용 가능한 분량이다.

신소재 바이오OK마스크는 바이오오키

칼 전문기업 벤텍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장영실상’을 받은 것으로, 걸면 발수코팅 처리하고 바이오 신물질인 헬사클린을 적용해 제작한 것이다. 30번을 세척해도 기존 항균 기능을 90% 유지해 1장으로도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다.

최운 OK금융그룹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이웃에게 힘이 되고, 앞으로도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금융서비스그룹이 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16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택시복지재단에서 열린 ‘바이오OK마스크 기부식’에서 탁용원(왼쪽부터) OK금융그룹 홍보스포츠본부장 이사, 김인환 OK금융그룹 부회장, 박복규 택시복지재단 이사장, 문홍석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임명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김용채 △지역경제정책관 김현철 ◇과장급 전보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이위로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건강보험정책과장 김현주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국제항공과장 김홍락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김재철 △충북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대원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과장 장일현 △ “ 조사2국장 심옥기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백승훈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오상훈 ◇과장급 전보 △국세청 대변인 장신기 △ “ 국제조사과장 김정주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의 위험이 주거빈곤 문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아동에게 심각한 문제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 상황은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방역에 관한 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소아과 의사들이 코로나19로 방치된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은 맥락이다.

지난 수요일 오전,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서 열 살, 여덟 살 어린 초등학생 형제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크게 나 중태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다. 학교 대신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서, 집이 안전하지 않은 아이들의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증폭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동에게 주거환경의 중요성, 물리적 공간의 불평등 문제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지적되어왔다. 습기와 곰팡이가 많은 집에 사는 아동은 천식 발생률이 높고, 침실을 타인과 공유하는 아이들은 수면 시간과 질이 떨어진다. 단독 화장실이 없는 집에 거주하는 아동은 심리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실제로 위생 문제로 질병 발생 확률이 높고, 성추행 등의 피해를 경험하는 빈도도 잦다고 보고된다.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2015)에 의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조건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택이나 지하방, 옥탑, 쪽방,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94만 명의 아이가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10명 중 1명이 주거빈곤에 놓여 있는 셈이다. 코로나 상황이 되자 물리적 공간인 주거환경의 격차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루의 3분의 1을 학교라는 공동의 공간에서 친구들과 같은 급식을 먹

으며 공부하고 생활하던 시간이 줄고, 사회적 공간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기 때문이다.

돌봄의 공간으로서의 집은 어떠한가? 주거 과밀의 경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성이 떨어지고, 가족갈등과 아동에 대한 처벌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왔다. 주거빈곤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전가되어 주거빈곤에 의한 직접 스트레스와 부모를 통한 간접 스트레스라는 이중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와 소득 등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거나, 좁은 공간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 가사와 돌봄 강도가 높아지면서,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전가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아이들의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과 불안이 증가하고, 돌봄체계가 취약한 저소득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에서는 아동의 영양 부족과 비만 증가도 눈에 띄게 나타난다.

학교의 대안적 학습 공간으로서 집의 불평등이 가져오는 교육 격차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주거빈곤 아이들은 집에서 원격 학습에 몰두할 조용한 공간이나 학습을 도와줄 부모가 곁에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매다수다. 학력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충분한 지도감독이 없는 상황에서의 재택학습과 사회적 소통의 질은 학교 학습이나 대면 서비스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디지털화의 증가가 성적 착취나 사이버 폭력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각국의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 바 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주거빈곤 문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아동에게 심각한 문제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 상황은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제민간구조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의 지원을 받는 전 세계 빈곤 아동들에게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가 닫힌 후 부정적 감정을 더 자주 느낀다는 빈곤 아동은 첫 4주간 62%에서 다섯 달째가 되자 96%로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이 32%, 조사된 빈곤 아동 중 1%도 안 되는 아이들만이 원격학습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방역에 관한 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소아과

의사들이 코로나19로 방치된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은 맥락이다.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집이 안전하지 않은 주거빈곤 아이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학교, 복지관, 문화센터 등의 공공 공간들을 쉽게 문 닫는 대신 지역사회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취약계층 아이들의 식사와 학습을 돌보고 챙기는 대면 돌봄과 교육 서비스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더욱 필요하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여건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가까운 복지관에 오도록 해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의 지도 아래 원격수업을 듣게 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초록e스쿨’은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아동은 제대로 입고 먹고 교육받고 안전한 곳에 살면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7조에 제시된 이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복지의 우선 순위가 아닌가.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경제학 박사·전 통계개발원장

코로나19로 올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에 더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더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며, 사람들의 행복에 있어서 물질적 기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는 ‘2020년 세계행복 보고서(2020 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15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54번째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대개 50위 근처에서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국내총생산(GDP)으로,

GDP 순위, 행복 순위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그만큼 국민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반드시 경제적 풍요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 생활의 질적 수준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GDP 통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통계 지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학자, 정책당국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행복’은 사람들 개개인의 주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 인간에게 행복이란 자기의 기대와 현실 간의 갭 크기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행복이지만 기대치를 낮추는 것 역시 행복이 될 수 있다. 히말라야 산록에 자리한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인데, 그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1위라 한다. “당신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서울 시민과 평양 시민에게 한다

면, 어느 쪽이 높게 나올지 모를 것이다. 각자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인간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사건이 행복과 불행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이혼을 증거나 대학진학을 증가가 행복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는지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이렇듯 ‘행복지수’에 대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작성방법상의 문제로 인해 국가통계기관에서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국가들의 사정이다. 특히 행복지수 작성에는 필연적으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통계기관이 이를 작성할 경우 자칫하면 통계의 중립성에 관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세계행복보고서’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계 및 민간 통계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그래도 행복지수에 관한 가장 신뢰할

만한 통계라 평가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통계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다. 작성방법에 대해 많은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 이를 뛰어넘는 이론적, 통계적 방법론을 찾기 어렵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발표되는 국가별 행복순위와 그 변동에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행복지수 작성방법의 타당성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 보고서에서는 행복지수 작성을 위하여 자연환경, 사회적 자유, 사회관계, 관용, 경제적 풍요 등 현 단계에서 인간의 행복과 그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를 광범위하게 고려하였다.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를 우리가 국가통계로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또 정책적으로는 국가가 이들 요소에 대해 어떻게 배려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그레타 가르보 명언
“나는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를 조용히 내버려 두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무성영화 시대 섹스 심벌로 출발한 미국 배우. 몸집이 크고 목소리마저 남성적인 데다 좁잡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진 그녀를 영화사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인물’로 여겨지게 연출했다. 대표작은 ‘그랜드 호텔’ ‘크리스티나 여왕’ ‘춘희’. 오늘은 그녀의 생일. 1905~1990.
☆ 고사성어 / 신독(愼獨)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말. 아무도 안 볼 때 제대로 자신의 일을 하거나 마음을 바로 다스릴 것을 강조한다. “소위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함이 없게 하는 것이나, 마치 고약한 냄새를 싫어하듯 좋은 빛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자기만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조심하는 것이다[故君子必慎其獨也].” 출전 대학(大學) 성의(誠意)편.
☆ 시사상식 / 자이가르닉 효과
사람들이 일을 하다 중도에 멈출 경우, 즉 미완성 상태에서는 그에 대해 기억을 잘 하지만, 일단 일이 끝난 뒤에는 그 일과 관련된 정보들을 망각하는 현상을 말한다. 시험이 끝나면 대개 시험에 나온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도 이 효과가 설명해준다.
☆ 유머 / 순한 사자는 없다
무명 배우에게 비중 있는 역활이 맡겨졌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사자와 장난치는 장면이다. 배우가 출연을 거부하자 감독은 “어릴 때 우유 먹어 길들인 늑대라 안심해도 돼. 전혀 위험하지 않아”라고 설득했다. 배우의 대답. “감독님, 저도 어릴 때부터 우유를 먹고 자랐지만, 가끔 고기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인도의 한 왕이 여럿 맹인들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 뒤 무엇인지 묻는다. 배를 만진 장님은 바람벽이라 하고, 다리를 만진 장님은 기둥이라고 대답한다. 군맹무상(群盲無象). 사물이나 현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주관과 좁은 소견으로 그릇되게 판단함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래 세기도 어려울 정도의 술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올 들어 나온 대책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갭투자 방지와 수도권 전역 규제지역 편입을 골자로 한 6·17 대책,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담은 7·10 대책, 수도권 공급 대책인 8·4 대책까지. 이달에 나온 사전청약제도 공급안까지 포함하면 6월부터 대책은 거의 매달 쏟아졌다.

기자수첩



김 동 효 부동산부/sorahosi@

‘군맹무상’식 부동산 정책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쉴 새 없이 내놓는 건 어디까지나 시장 안정 때문이다. 그 선한 의도를 문제 삼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대책이 시장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정부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 파다하다. 임대차법 통과

과정도 그랬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기존의 관행을 뒤엎는, 대수술과 다름없는데도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통과되다 보니 전세시장 곳곳이 매물 부족과 임대·임차인 간 분쟁에 시끄럽다.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이미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많

다. 그 누구보다 소통을 중요시할 것 같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유독 폐쇄성을 띠는 건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현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정책 효과에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 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3년간 서울 집값이 50% 넘게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커도 너무 큰 간극이다. 눈앞에서 치솟는 집값을 봐온 서민들은 정부의 입을 좀처럼 믿을 수가 없다. 정부가 수많은 목소리와 통계에 모조리 귀와 눈을 열어야 군맹무상과 규제의 역설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엔 아직도 2년의 임기가 남아 있다.

이슈&인물

농업을 미래형 생명산업으로

오 병 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농식품 산업 발전, 결국 R&D에 달렸다”

“농업이 미래형 생명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것은 연구개발(R&D) 기획과 정책 개발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병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 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농식품 산업 발달을 위해서는 결국 R&D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올해 1월 20일 취임했다. 농기평은 농업과 농촌, 농식품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다양한 R&D 사업을 기획하고, 연구 과제를 평가·관리해 성과를 확산시키는 기관이다. 오 원장은 “정부의 연구 지원이 필요한 문제나 기술 영역을 파악하고, 연구를 통해 해당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 과제가 목표한 대로 잘 진행되는지 평가하고, 연구 결과가 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는 곳”이라고 농기평을 소개했다.

“금보다 비싼 종자 개발하자”

올해 농기평의 R&D 예산은 총 1949억원. 스마트 농업을 비롯해 바이오산업, 고품질 농식품, 기후변화·재난·질병대응,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총 5가지 분야 2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시작한 농기평의 골든시드프로젝트(GSP)는 국내 종자산업 수출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 GSP 사업은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하자’는 취지로 우수종자의 수출 및 수입대체를 위해 품종개발 관련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2019년도 기준 수출 5034만 달러 외에도 국내 매출 229억원, 품종개발 145건 등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오 원장은 “GSP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가연구개발 사업 우수성과 100선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과제가 선정됐다”며 “국가 R&D 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이 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눈여겨볼 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종자산업은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오 원장은 프로젝트를 더욱 키워갈 계획이다. 그는 “세계 종자시장은 55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억 달러로 비중 1%에도 못 미친다”며 “세계 종자시장의 70%는 식량(곡물)이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민간에서는 대부분 채소 종자만 갖고 있어 경쟁력이 부족하고, 민간이 비싼 종자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고 나아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종료되는 GSP 사업에 이어서는 ‘디지털 육종기반 종자산업 혁신기술 개발사업(가칭)’을 기획 중이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사업비 6550억원(농식품부 2000·농촌진흥청 3150·산업청 200·민간 1200)의 부·청이 함께 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이후부터는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스마트팜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 과기부, 농진청과 공동으로 1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단을 구성하고 전문가를 확충한다. 이 외에도 종자산업, 노지 정밀농업(2023년~), 동물감염병(2023년~), 마이크로바이옴(2023년~) 등 장기 프로젝트가 계획 중이다.

오 원장은 “단기·소액 과제 위주의 투자



오병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내년 종료 ‘골든시드프로젝트’

수출 성과 있었지만 아직은 미미

‘디지털 육종 종자혁신’ 기획 중

단기·소액 과제 한계 극복 위해

투자 금액·지원 기간 늘리고

중장기 정책 개발에 치중할 것

영세 농산업체 R&D 여건 고려

현금부담금 현물로 대체 가능케

고용 창출 ‘한국형 뉴딜’도 참여

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어려운 한계 극복을 위해 과제당 투자 금액(1억~3억원)을 두 배 이상 증액할 예정”이라며 “과제지원 기간 또한 1~3년에서 5년 수준으로 확대해 연구자의 몰입과 자율성을 높이되, 충분한 연구성과가 담보되도록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세 농식품 기업 현안인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D.N.A(Data·Network·AI) 등 첨단기술을 도제 가공공정, 식품제조공정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농업용 필름, 농약원제 등 주요 농자재 수입의존, 축산 분야 생산비 상승 및 환경문제 등 고질적 농업 현안 해결에 본격 투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업계 연구개발도 차질

이 같은 사업들의 핵심은 결국 R&D라는 것이 오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2009년 농기평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며 농기평의 설립에 일조했다. 농립수산 분야 R&D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농기평 출범을 추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오 원장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농기평의 R&D 기획 역량 강화에 나섰다. 기획과 예산 업무를 총괄기획본부로 일원화했고 이를 통해 중장기 정책 개발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기능을 뒀다. 또 정책개발팀을 신설하여 앞으로 농식품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했다.

하지만 오 원장은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연구 진행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기업 80%가 R&

D 활동에 차질이 생겼고, 농산업체는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라 연구과제 중단까지 이어질 우려에 처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농기평은 R&D가 계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과기부와 논의해 올해까지였던 기술사업화지원,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등 사업은 2025년까지 일몰을 연장했다. 이들 사업은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손꼽힌다.

또 중소기업의 현금부담금(매칭금액의 10%)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전체 연구비의 25%를 매칭하되 매칭금액의 90%는 현물(과제참여 직원의 인건비·보유 중인 연구 장비 사용료 등)로, 10%는 현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기존 매칭금액의 10%까지 현물로 대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현금 보유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D 코디네이터’ 일자리 창출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도 적극 참여한다. 한국판 뉴딜이란 고용 충격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다.

오 원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 R&D 기획 및 투자방향을 그린 뉴딜 분야로 전환했다”며 “녹색산업 혁신이나 도시·공간·인프라의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구현, 녹색기반 구축 등 연관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의 R&D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 코디네이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R&D 코디네이터란 농식품 R&D 경력 5년 이상인 산·학·연 퇴직 연구자들이 연구 관리나 기술사업화 등에서 자문을 수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30명에 불과했던 코디네이터는 올해 166명까지 확대했고, 퇴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오 원장은 “농식품기업, 자조금 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이 연구개발에 참여하면서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기업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퇴직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사설

기업활력 높여야 코로나19 장기화 이겨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지난 8월의 전망치 -0.8%에서 한 달 만에 0.2%포인트(P) 내렸다. 코로나19가 더 번지고, 서울과 수도권

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경제 충격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OECD는 미국과 중국,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보다 높였다. 이전 -7.3%로 내다봤던 미국 성장률을 -3.8%로, 중국은 -2.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 평균은 -6.0%에서 -4.5%로 올랐다. 코로나19의 악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에 비춰 상당히 낙관적 전망에 치우친 느낌이다. 전 세계 확진자는 30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인도·브라질·러시아 등 신흥국의 코로나 확진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높다. OECD 회원국에서도 가장 양호하다. 정부는 이 점 강조하고 있다. ‘K방역’의 성과에 힘입은 경기 선방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부분 국가와 달리 한국은 내년에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하고, 회복 수준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성급한 자화자찬이다. 훨씬 비판적인 전망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 2차 대유행 점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3~5.5%로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7~8월 감염자수가 3분기에도 유지되는 시나리오 상황에서 성장률이 -2.3%이고, 9월 감염자가 7~8월보다 25% 증가하는 시나리오2의 경우 -5.5%까지 내려앉는다고 분석했다. 국내 코로나19는 여전히 통제가 안 되고 있다. 8월 중순 이후의 급격한 확산세는 한풀 꺾였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계속 세 자릿수다. 집단감염과 함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추석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자본축적 및 생산성 감소 등의 영구적 피해로 인해 단기적 성장을 후퇴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가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코로나 충격이 소득(GDP)을 감소시키고,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 손실을 가져와 장기적인 성장경로의 급속한 하향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비대면 산업 활성화와 제조업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및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 제도의 혁신을 통해 기업투자를 늘리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기 극복과 장기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길이다.

영화로 보는 세상

끝이 좋으면 다 좋다 ‘한 번 더 해피엔딩’

인생이 길어졌다. 이제 인생 이모작, 삼모작까지 이야기한다. 그만큼 장기적인 삶의 경영이 필요하다. 처음에 잘나갔다고 해서 계속 잘된다는 보장도 없다. 터닝포인트도 잘 잡아야 한다.

할리우드에서 잘나갔던 작가 키스 마이클스(휴 그랜트)도 한창 때는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을 정도의 인기 작가였다. 하지만 이제는 남이 쓴 각본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잡글을 써 근근이 호구 지책으로 삼고 있다. 그러던 차에 시골의 전임교수 자리를 제안받는다. 시나리오 강의 자리가 비었던다. 집도 자동

차도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어째 영 내키지 않는다. “교수라는 작자들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면서 학생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루저들 아니야? 난 싫어!” 그러나 전기료를 내지 못해 방 안의 전기가 단전되고, 할 수 없이 뭐 하는 심정으로 시골 대학으로 가 겪게 되는 인생 2회전 이야기가 바로 영화 ‘한 번 더 해피엔딩’이다.

휴 그랜트는 시나리오가 푹 떨어지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발산할 수 있는 영화에 잘 맞는 배우다. 허당기가 있으면서 위트 넘치고 귀여운 영국 영어 악센트를 구사하는, 미워하려면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을 지녔다.

부임 첫날 초짜 교수는 우연히 만난 여

학생과 깊은 관계까지 가 버린다. 그러나 여학생은 아주 뻔뻔하다. “교직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큰 성인 남녀가 한 이불 속에 잔들...” “이봐, 우린 부적절한 관계라고!”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었질러진 물. 그는 첫 수업부터 펑크를 내고 대학 윤리위원회 여교수에게는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좌충우돌 행각을 보인다. 그저 LA에서 자신의 시나리오가 팔려 이곳을 빨리

떠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할리우드 제작자는 오히려 그의 제자가 제출한 시나리오를 맘에 들어하면서 일이 꼬이고만 다. 그러다 문득 그는 자신이

뒤늦게 찾은 천직이 바로 학교임을 깨닫게 된다.

“노력만 한다고, 열정만 가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항상 이런 독설을 입에 달고 살았던 그도 인생 막바지에 주어진 하늘의 소명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듯 인생 이모작은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과 다르게 펼쳐질지 모른다. 그러나 삶을 관통하는 교훈은 여전히 존재한다. ‘꾸준한 노력과 끊임없는 열정은 한 줌의 재능을 이긴다는 사실을...’ 그리고 ‘끝이 좋으면 결국 다 좋다’는 것을. 4, 50대 중년 아재들도 한 번 더 해피엔딩을 외치며 남은 생을 버텨내 보자.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2020년 국가고객만족도 가전 11개 부문 수상

압도적 1위 LG

올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해주신 LG전자,
지금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2020년 고객만족도 1위 기념 감사 이벤트

기간: 2020. 9. 10 ~ 행사 종료시

- 1) ‘국가고객만족도 (NCSI) 11개 부문 1위’ 소문내기 이벤트
-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소문내기 이벤트 참여자 중 총 1,100명 추첨하여
‘올레드 TV 65, 워시타워, M9’ 등 다양한 경품 증정
- 2) ‘국가고객만족도(NCSI) 11개 부문 1위’ 대상 제품
- 할인쿠폰 100% 증정 이벤트

※ 본 행사는 행사 참여 모델에 한하며, 모델 및 혜택은 매칭별로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LG 베스트샵 백화점에 문의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LG전자 멤버십 앱을 참조하세요



2020년 9월

종합

2020년 국가고객만족도 가전 11개 부문 1위 LG



※ 본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 2020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11개 부문 수상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워시타워,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 정수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 상기 제품 이미지는 NCSI 1등 수상 부문 제품 및 워시타워로 구성했습니다

LG전자가 올해도 국가고객만족도(NCSI) 11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제습기는 물론 최근 필수가전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의류건조기, 무선청소기,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정수기 등에서도 1위의 영예를

또한 LG전자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4단계 청정 관리 기능을 탑재한 '휘센 에어컨', 모든 방향에서 공기를 흡입해 쾌적함을 만드는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자동 물 공급 시스템을 갖춘 '코드제로 A9S